

뉴멕시코주
한인들을 위한

광야의 소리

Voice in the Wilderness

웹사이트: voice.kumcabq.com

3/4월호
2020년



CONTENTS

한인회장인사 안녕하세요? 뉴멕시코 한인동포님들! 민명희 : 2	생활정보 오수나 정원관리 무료강의 : 8
건강관리 코로나 바이러스 CDC 발표내용:3	칼럼 삼일운동과 감리교회 김기천 : 9
VOA Korea 한국영화 '기생충' 오스카상 수상 : 4	수필 앨버커키 이정길 : 10
지역사회 산타페 지역신문 발간 : 5	부흥회설교 나의 하나님 이훈경: 11
지역사회 Jonathan Lee 심사위원초대/ 순회영사업무 : 6	증인을 찾으시는 하나님 이훈경: 12
지역사회 더엠베서더인 호텔 / 이석종 원로목사 시민권취득 : 7	수필 눈 질끈 감고 나정자 : 14
지역사회 김재태 목사소천/장례식 김석훈 : 8	영어상식 영어 이야기 7 이상목 : 15
지역사회 윤희나양 센트루이스에서 수상 : 8	교회소식 교회에서 이산가족 상봉 김숙경 : 16
	수필 저런 그 고향집 김은희 : 17
	Census2020 센서스 인구조사안내 : 18
	광고 뉴멕시코주 한인교회안내/업소안내:19-22

한인회장 인사

안녕하세요? 뉴멕시코 한인 동포님들!



민명희

뉴멕시코한인회 회장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 바이러스에 많은 걱정과 염려 속에 어려운 생활이 계속되는 상황에서 우리의 선조들이 어둠의 시대를 걸쳐 미래의 후손들에게 물려준 숭고한 투쟁 정신을 물려받아 지금의 재앙을 이겨낼 수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아래의 독립 선언서를 함께 읽어 내려가시면 우리 안에는 우리 동포들을 하나로 뭉치게 하는 원동력이 솟아오름을 느낍니다.

***** 3.1 절 독립선언서 *****

-우리는 오늘 조선이 독립한 나라이며 조선인이 이 나라의 주인임을 선언한다
-우리는 이를 세계 모든 나라에 알려 인류가 모두 평등하다는 큰 뜻을 분명히하고
-우리 후손들이 민족 스스로 살아갈 정당한 권리를 영원히 누리게 할것이다.
- 이 선언은 5천년 동안 이어온 우리 역사의 힘으로 하는것이며 이천만 민족의 정성을 모은것이다.
- 우리 민족이 영원히 자유롭게 발전 하려는것이며, 인류가 양심에 따라 만들어가는 세계변화의 큰 흐름에 발 맞추려는것이다.
- 이것은 하늘의 뜻이고 시대의 흐름이며 전인류가 함께 살아갈 정당한 권리에서 나오는 것이다.
- 이 세상 어떤것도 우리 독립을 가로 막지 못한다.
- 낡은시대의 침략주의와 강건주의로 우리 민족이 수천년 역사상 처음으로 다른 민족으로부터 억눌리는 고통을 받은지 십년이 지났다.
- 그동안 스스로가 살아갈 정신을 발달시킬 기회가 가로막힌 아픔이 얼마인가?
- 권리를 빼앗긴 고통은 헤아릴수 없으며 민족의 존엄함에 상처 받은 아픔 또한 얼마인가?
- 새로운 기술과 독창성으로 세계문화에 기회를 잃은것이 얼마인가?
- 아, 그 동안 쌓인 억울함을 떨쳐내고 지금의 고통을 벗어 던지려면, 억눌린 민족의 양심과 사라진 국가정의를 다시 일으키려면, 사람들이 저 마다 인격을 발달시키고 우리 가여운 자녀에게 고통스런 유산대신 완전한 행복을 주려면 우리에게 가장 급한 일은 민족의 독립을 확실하게 하는것이다.
- 오늘 우리 2000만 조선인들은 저 마다 가슴에 칼을 품었다. 모든 인류와 시대의 양심은 정의와 군대의 방패가되어 우리를 지켜 주고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나아가 싸우며 어떤 강한 적도

꺾을수있고 설령 물러 난다해도 어떤뜻도 꺾수있다.

- 우리는 일본이 1876년 강화도조약 뒤에 갖가지 약속을 지키지 않는다고 일본을 믿을수 없다고 비난하는 것이 아니다.
- 일본의 학자와 정치가들이 우리 땅을 빼앗고 우리 문화와 민족을 야만인처럼 대하고 우리 오랜사회와 민족의 훌륭한 심성을 무시한다고해서 일본의 의리 없음을 탓하지 않겠다.
- 우리는 스스로 채찍질 하기에 바쁘고 남을 원망할 여유가 없다.
- 우리는 지금의 잘 잘못을 잡기에도 급해 우리에게는 과거의 잘못을 따질 여유가 없다. 지금 우리가 할일은 우리 자신을 바로 세우는 것이지 남을 파괴하는것이 아니다.
- 양심이 시키는대로 우리의 새로운 운명을 만들어 가는 것이지 결코 오랜 원한과 한 순간의 감정으로 샘이나서 남을 쫓아내려는 것이 아니다.
- 우리는 단지 낡은 생각과 세력에 사로 잡힌 일본 정치인들이 공명심으로 희생시킨 불합리한 현실을 바로 잡아 자연스럽게 올바른 세상으로 되 돌리는 것이다.
- 처음부터 우리민족이 바라지 않았던 조선과 일본의 강제병합이 만든 결과를 보라!
- 일본이 우리를 억누르고 민족 차별의 불 평등과 거짓으로 꾸민 통계숫자에 따라 서로 이해가 다른 민족 사이에 화해할수없는 원한이 생겨나고있다.
- 과감하게 오랜 잘못을 바로잡고 진정한 이해와 공감을 바탕으로 사이좋은 새 세상을 여는것이 서로 재앙을 피하고 행복해지는 지름길이 분명하지 않은가?
- 또한 울분과 원한에 사무친 2000만 조선인을 힘으로 억누르는것은 동양의 평화를 보장하는 길이 아니다. 이는 동양의 안전과 위기를 판가름하는 중심인 4억만 중국인들이 일본을 더욱 두려워하고 미워하여 결국 동양 전체를 함께 망하는 비극으로 이끌것이 분명하다.

코로나 바이러스 전염 예방 차원에서 함께 순국 열사님들의 애국정신을 기리며 만세 삼창은 못 했으나 마음으로 조용히 감사함을 각자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

코로나 바이러스에 관한 CDC 발표내용

아래의 글은 미 질병통제예방센터 CDC 홈페이지를 통해서 코로나 바이러스를 소개한 내용을 번역 요약한 글이다. 원문은 웹사이트를 통해 더 상세히 알아 볼 수 있다. 주소: www.cdc.gov/coronavirus/

배경

CDC는 중국에서 처음 검출된 신규 코로나바이러스로 인한 호흡기 질환의 발생에 대응하고 있으며, 현재 미국을 포함한 국제적으로 60여 곳에서 검출되었다. 이 바이러스의 이름은 “SARS-CoV-2”이고, 이 바이러스가 일으키는 질병은 “코로나바이러스 질환 2019”(이하 “COVID-19”)로 명명되었다.

2020년 1월 30일 세계보건기구(WHO) 국제보건 규정비상대책위원회는 이번 발병을 “국제 관심사의 공중보건 비상(PHEIC)”이라는 공중보건 비상사태로 선포했다. 2020년 1월 31일, 알렉스 M. 아자르 2세 보건 복지부 장관은 미국의 COVID-19 대응 의료계를 돕기 위한 공중 보건 비상(PHE)을 선포했다.

바이러스 출처 및 확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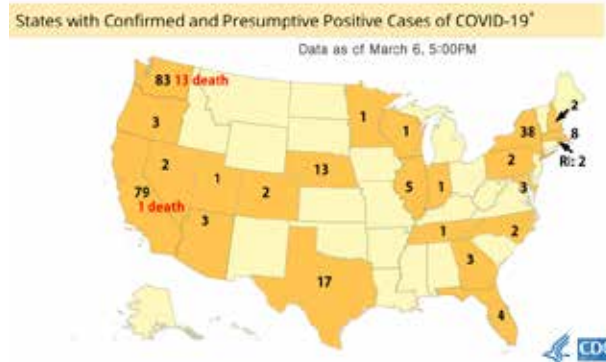
코로나바이러스는 사람을 포함하여 낙타, 소, 고양이, 박쥐를 포함한 많은 다양한 종류의 동물에게서 볼 수 있는 바이러스의 한 종류이다. 동물 사이에 전염되는 코로나바이러스는 사람을 감염시켜서 번지는 경우가 있는데 메르스-CoV, 사스-CoV에 이어 이제 이 새로운 SARS-CoV-2바이러스가 등장한 것이다. SARS-CoV-2 바이러스는 메르스-CoV와 사스-CoV와 같은 베타 코로나바이러스에 속한다. 이 세 가지 바이러스는 모두 박쥐에 기원을 두고 있다. 중국 후베이성 우한에서 발생한 발병의 진원지에 있는 많은 환자들은 대규모의 해산물 시장과 동물 시장과의 연관성을 가지고 있어서 초기에는 동물에서 사람으로 확산되었을 것으로 믿어진다. 이후 동물 시장에 노출되지 않은 사람이 감염된 것으로 보아 사람 대 사람으로 확산됐음을 알 수 있다. 사람 대 사람 확산은 이후 후베이 시 외곽과 미국을 포함한 중국 밖의 국가에서 보고되었다.

병의 심각도

메르스-CoV와 사스-CoV 모두 사람들에게 심각한 질병을 유발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COVID-19에 관한 전체 임상 사진은 완전히 이해되지 않는다. 보고된 질병은 가벼운 질병에서 중증까지 다양하며, 사망을 초래하기도 한다. 더 많은 것을 알아내기 위해 연구조사가 진행 중이다. 이 연구조사는 빠르게 진행되고 있으며 새로운 정보가 나오는 대로 웹사이트를 업데이트 시켜서 일반에게 알릴 것이다.

COVID-19 확산 방법

2019년 코로나바이러스(COVID-19)는 새로운 질병이어서



3월 6일 현재의 미 국내 주별 코로나바이러스 확산 현황. 하루하루가 달라지고 있다.

어떻게 확산되는지, 병의 심각성, 그리고 그것이 미국에서 어느 정도까지 퍼질지에 대해 아직 확실한 이해를 못 하고 있다. 그러나 유사한 코로나 바이러스에 관해 알고 있는 지식에 근거해서 아래와 같은 사항을 알려드립니다.

● 사람과 사람사이의 확산

이 코로나 바이러스는 주로 사람과 사람 사이 접촉으로 퍼지는 것으로 생각된다.

● 서로 가까이 만나는 사람들 사이(약 6피트 이내).

감염된 사람이 기침이나 재채기를 할 때 나오는 침방울(droplet)을 통해서 전염될 수 있다. 이 침방울이 주위 사람들의 입이나 코에 떨어질 수 있고 폐로 흡입될 가능성이 있다.

● 감염된 표면 또는 물체와의 접촉으로부터 확산

바이러스가 붙어 있는 표면이나 물체를 만지면 COVID-19에 걸릴 수 있고, 그다음에 입, 코, 또는 눈을 만지는 것을 통해 전염될 수 있다고 믿어진다.

COVID-19 지역사회 확산 방지

미국인들은 자신들의 지역사회에서 COVID-19가 발생할 가능성에 대비해야 한다. 지역사회는 COVID-19의 확산을 줄이기 위한 조치를 할 수 있다. 모든 사람은 준비를 하고 건강을 유지하는 역할을 해야 한다.

현재 COVID-19에는 백신을 사용할 수 없다. 백신이 개발되기 전까지는 학교 휴교 조치, 사회적 행사 취소, 원격 근무 계획 수립 등을 통해 COVID-19의 확산을 늦출 수 있다. 개인들은 각자 자주 손을 씻거나 아플 때 집에 있고 기침과 재채기를 하는 것과 같은 일상적인 예방 조치를 취할 것을 권한다. ■

한국 영화 '기생충' 오스카상 수상

한국 영화 '기생충'이 세계 영화산업의 본산지인 미국 '아카데미 시상식'에서 최고상인 작품상을 포함해 4관왕에 올랐습니다. 한국 음악인 'K-POP'뿐 아니라 이제는 한국 영화, 'K-FILM' 까지 세계 문화의 중심에 우뚝 서며 한국이 문화 콘텐츠 강국 대열에 올랐다는 평가입니다. 오택성 기자입니다.

지난 9일 미국 로스앤젤레스 돌비극장에서 열린 미국 최대 영화 축제인 '아카데미 시상식' 현장.

시상식의 백미인 최고상, 즉 작품상 수상작을 발표하는 순간 장내는 긴장감 넘치는 적막이 흐릅니다.

[녹취: 제 92회 미국 아카데미 시상식] "The Oscar goes to... parasites!"

오스카 상의 주인공은 바로 한국 봉준호 감독의 '기생충'이었습니다.

이날 '기생충'은 작품상뿐 아니라 감독상과 각본상, 국제영화상 까지 수상하며 4관왕을 차지했습니다.

한국 영화 '기생충'이 세계 영화산업의 본산지인 미국 '아카데미 시상식'에서 최고상인 작품상을 포함해 4관왕에 올랐습니다. 한국 음악인 'K-POP'뿐 아니라 이제는 한국 영화, 'K-FILM' 까지 세계 문화의 중심에 우뚝 서며 한국이 문화 콘텐츠 강국 대열에 올랐다는 평가입니다. 오택성 기자입니다.

지난 9일 미국 로스앤젤레스 돌비극장에서 열린 미국 최대 영화 축제인 '아카데미 시상식' 현장.

시상식의 백미인 최고상, 즉 작품상 수상작을 발표하는 순간 장내는 긴장감 넘치는 적막이 흐릅니다.



9일 미국 로스앤젤레스 돌비극장에서 열린 제92회 아카데미시상식에서 한국 영화 '기생충'이 작품상 등 4관왕에 올랐다. 봉준호 감독이 여배우 제인 폰다로부터 작품상 오스카 트로피를 받으며 감격스러워하고 있다.

[녹취: 제 92회 미국 아카데미 시상식] "The Oscar goes to... parasites!"

오스카 상의 주인공은 바로 한국 봉준호 감독의 '기생충'이었습니다. 이날 '기생충'은 작품상뿐 아니라 감독상과 각본상, 국제영화상까지 수상하며 4관왕을 차지했습니다.

'기생충'의 아카데미 작품상 수상은 한국 영화 사상 최초 수상일 뿐만 아니라 아카데미 역사상으로도 최초였습니다.

올해 92회를 맞은 아카데미 시상식은 그동안 단 한 번도 외국어 영화에 최고상을 준 적이 없습니다. 영화 '기생충'에는 이색적으로 북한 대외선전매체의 아나운서를 흉내낸 부분이 등장했는데, 특히 큰 관심을 끌었습니다.

[녹취: 영화 '기생충' 중 일부] "경외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 동지께서는 오늘 이번 일가족 사기단의 동영상을 보시면서 그들의 악랄하고 저급한 도발에 대해서 경악과 분노를 금치 못하시었다."

'기생충'의 봉준호 감독은 시상식 직후, 세계 최대 동영상 재생 사이트인 유튜브와 같은 재생 기술의 발달로 한국 영화 콘텐츠는 이미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녹취: 봉준호 감독] "이미 (언어) 장벽이 많이 허물어져서 모두가 서로 연결되어 있는 세상인 것 같아요. (영화 기생충이) 미국뿐 아니라 프랑스에 이어 일본과 영국에서도 관객들의 반응이 뜨겁게 이어지고 있어서 그런 것들을 입증해 주는 것이 아닌가 싶고. 특히나 오늘 좋은 일이 있음으로 해서 더더욱 그 장벽이 흔적도 없이 사라지는 시점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 보다 더 빨리 올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미국



노스캐롤라이나 예술대학에서 연기를 전공하고 있는 장시은 씨는 최근 잇따른 한국문화의 성공과 이에 따른 미국사회의 반응을 직접 느끼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녹취: 장시은 씨] “All of my friends, Asian, white, black, they’re all really celebrate celebrating this win. I’m just glad that the rest of the world caught up with us like they finally realize that it’s really cool.” 장 씨는 이번 ‘기생충’ 수상에 대해 학교 내 백인과 흑인, 동양인 할 것 없이 모두 축하해 주고 있다며, 마침내 전 세계 사람들이 한류 문화가 훌륭하다는 것을 인정해줘서 매우 기쁘다고 말했습니다. 캘리포니아 주립 로스앤젤레스대학교 연극, 영화 및 TV 대학의 톰 누난 교수는 ‘기생충’ 수상과 관련해 “한국은 영화와 TV뿐만 아니라 음악과 패션의 세계에서 창의성과 혁신, 흥분의 온상으로 알려져 있다”고 말했습니다.

[녹취: 누난 교수] “South Korea is known for being a hotbed of creativity, innovation and excitement in the world of not just film and TV, but of music as well and fashion. And there’s obviously other centers of culture, booming culture around the world. And it’s our time now to really look at that and celebrate that.” 그러면서 한국의 문화 콘텐츠는 전 세계적인 팽창을 일으키는 문화라며, 이제는 전 세계가 그 것을 보고 축하할 때라고 말했습니다. VOA뉴스 오택성입니다.

산타페 지역신문 발간

산타페 지역신문(산타페 행복소식지)이 올해부터 발간하게 됩니다. 그간 산타페와 로스알라모스 지역 한인회에서 연말 송년회로 일년에 한번이지만 함께 모이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마저 모이지 못하게 되어 산타페와 인근지역 한인들의 연결고리가 상실된 상황이라, 저희 산타페 한인교회 당회에서는 지역 한인사회의 연결을 돕고자 신문발간을 계획하게 되었습니다. 올해 시작은 8면정도의 분량으로 시작하며 이후 증편이 예상됩니다. 산타페와 로스알라모스, 타오스 등 인근 지역의 한인들이 서로 소통하는 좋은 취지의 이 신문사역에 많은 격려와 협조 부탁드립니다. 기사와 광고문의 seokhoon1004@gmail.com ■



광고



다이어트 코치(지킴)

다이어트는 살 빼기 위해 하는 노력이 아니라 건강해지기 위해 갖는 습관입니다.

뱃살 많으면 염증 물질 분비가 생겨 암에 걸릴 위험이 커집니다.

3대 사망 원인이 1위가 암, 2위가 뇌혈관 질환, 3위가 심장 질환이라고 합니다.

면역세포의 70%, 행복 호르몬의 90%, 제2의 뇌라고 부르는 장, 장면역 튼튼히 하시고 간 해독, 뇌 건강, 몸 변신을 4주 코스 에너지 다이어트 (GED)를 미국 코치로써 권합니다.

2월 27일에 시즌 3- 2기가 시작 하였습니다. 한국에서는 2018년도에 시즌 1을 시작하여 9살 아이부터 70세 어른까지 많은 분들이 비만에서, 혹은 당뇨에서, 혈당수치, 높은 간지방수치에서 해방된 사연이 쏟아지고 있었습니다. 현재까지 총 6,400명 수강 한 (한국과 미국) 안전한 GED 스쿨입니다.

4월중순에 3기 시작 하니 궁금한거 미리 연락

주세요.

참고로 제가 영어와 한국어로 신청, 제품구입을 도와드리며 가입후 미국전체 카톡방에서 한국에 계신 두 한의원 원장님 (지킴의학자문/GED 개발자)께서 안전하게 다른 코치진들과 같이 4주동안 관리 해드립니다.

또한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로 심각한 이때 개인의 건강 꼭 챙기시고 좀 더 면역력을 키우시려면 연락주세요. 지킴 제품 “CK Balance Power와 비타민 C 2000mg” 으로 본인과 가족을 지키세요!!



미국 코치 조영랑

505-699-5746

youngjoalmeida@gmail.com

음악경연대회 심사위원으로 조나단리 초청받아

1992년부터 뉴멕시코 심포니 길드(NMSG)로 알려져 왔던 뉴멕시코 뮤직 길드(New Mexico Music Guild: MGNM)는 이곳 뉴멕시코주의 젊은 음악인들을 대상으로 한 연례 피아노 / 현악 경연대회를 주최해왔다. 이 행사는 NMSG/MGNM의 오랜 회원이자 NMSG의 과거 회장인 재키 맥게히(Jackie McGehee)의 이름이 붙여졌는데, 그는 이 행사를 지금까지 프로그램에 계속 지원하며 돕고 있다. 이 행사는 음악 전공 학생들에게 최고의 경연대회 중 하나가 되었고 우승자들에게 상금을 주며 뉴멕시코 필하모닉 같은 오케스트라와 협연할 기회를 제공해 준다. 이 경연대회에 참가할 수 있는 자격은 13세에서 21세 내에 속하는 음악을 정진하고 있는 뉴멕시코 학생이면 된다. 경기 신청은 매년 접수되며 제출 마감일은 12월 초이다. 합격통지서는 1월에 발송되며, 대회는 매년 2월에 앨버커키에 있는 Robertson and Sons Violin Shop 리사이틀 홀에서 열린다.

경연대회의 연주 심사위원으로 미전역에서 저명 음악가를 초청해 왔다. 올해에는 오하이오주에서 활약하고 있는 음악가 네 분을 모셨는데 그중 한 사람이 첼로 연주가 조나단 리씨이다. 조나단 리는 산디아 국립연구소의 이재원 씨와 뉴멕시코 필하모닉의 바요린 연주자인 줄레니리의 아들이며 이곳 이경화 장로와 이옥주 권사의 손자가 된다. 조나단리는 10년 전 그가 이곳 고등학교 재학시절에 바로 이 재키맥게히 경연대회에 참가하여 현악 부분에서 일등의 영광을 얻었고 그 후 첼로 연주로로 정진하여 지금은 오하이오주 데이턴에서 Dayton Philharmonic 첼로 주장으로 있으면서 신시나티에서 Immaculata Trio를 조직하여 신시나티 지역 주민을 위한 실내악 연주 활동도 해오고



(사진)경연대회주최자인 재키 맥게히 여사(앞 중앙)와 경연대회 심사위원 (왼쪽부터) Kanako Shimasaki(바요린), Jonathan Lee(첼로), Elisabeth Prionoff(피아노), Martin Hintz(비올라)

2020년 원거리 상반기 순회영사업무

주LA총영사관은 뉴멕시코 지역에 거주하는 재외국민들의 민원 편의를 위해 2020년 상반기 순회영사 활동을 실시할 예정이다.

1. 순회영사업무: 여권, 가족관계등록(출생 · 혼인 · 이혼 · 사망), 국적(상실 · 이탈), 병역(국외여행허가), 공증(위임장 등 영사확인), 재외국민등록(등록 · 등본발급), 사증(한인만 신청 가능), 신원조사증명서 신청 등의 민원업무를 접수 · 처리
2. 실시일정 및 장소 : 4월7일 화 9:00-14:00
뉴멕시코한인회관: 9607 Menaul Blvd. NE Albuquerque,
3. 관련 문의사항 연락처
* 민명휘 한인회장 505-321-7274 stellahmin@hotmail.com
*민원업무 내용 등 문의 : 주로스앤젤레스 총영사관 순회영사실
- 이메일 : consul-la@mofa.go.kr
- 전 화 : 213-385-9300, 내선번호 221 또는 222 ■

있다.

클래식 음악 방송국인 KHFM에서는 경연대회 하루 전날 방송국에 조나단과 재키맥게히 두 분을 초청하여 인터뷰 방송을 내보냈다. 고향에 돌아와서 후진들의 경연을 심사하게 된 소감을 묻는 질문에 조나단은 “10년 전에 이 경연대회를 참가했던 일은 저의 음악 경력에 큰 발판이되었습니다. 내일 경연에 참가하는 학생들에게서 악보를 연주하는 수준을 넘어서서 음악적 표현을 잘 발휘하는 학생들을 만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고 했다. 경연대회를 주최하는 재키 맥게히 여사는 인터뷰에서 “28년간 계속해온 이 경연 대회는 많은 음악가를 배출해냈고 그들이 음악계에 진출해나가는 과정을 지켜보며 후원하는 일도 계속하고 있습니다. 올해에도 여러 음악 애호가들의 도네이션 에 힘입어 1만 불이 넘는 후원금을 선발된 학생들(8명)에게 나누어 지원할 수 있게 되어 기쁩니다”라고 했다.

지난 24일 경연대회 결과, 16명의 학생이 참여한 현악 부분에서는 Lorenzo Gallegos, Jr.학생이, 6명이 참가한 피아노 부분에서는 Gabriel Ingliss학생이 1등의 영광을 차지했다. 이들은 6월 5일 알버커키 동물원 야외음악당에서 있을 뉴멕시코 필하모닉 공연때에 협연하는 영광도 갖게 된다. 로렌조 학생은 작년 경연에서 2등을 수상했었는데 당시 피아노 반주자는 UNM에서 피아노 전공 중이며 한인연합감리교회 찬양대 반주자인 한지혜(에스터)(한승우, 한은영전도사의 따님)양이 었다. 지혜 양은 금년에도 여러 바요린 경연자의 피아노 반주를 담당했었다.

■

한인이 운영하는 더엠베서더인 호텔

앨버커키에 한인이 운영하는 호텔이 생겼다. 캔텔라리아와 I-25가 교차하는 지점에서 서남편에 있는 더엠베서더인(The Ambassador Inn) 호텔이 최근 콜로라도에서 이사해 내려오신 강만옥 씨와 조영자 씨 내외가 인수해서 영업을 들어간 것이다. 콜로라도 덴버에서 옷 상점의 경력을 갖고 계신데 알버커키가 살기좋은 도시이면서 비즈니스 하기에 좋은 도시라고 생각되어 호텔 비즈니스를 찾던 중 운영하기에 부담스럽지 않은 아담하고 깨끗한 호텔을 인수할 수 있게 되었다고 한다. 호텔을 한 등급 업그레이드시킬 목표로 리모델링을 해나갈 계획이라고 조영자 씨는 그의 포부를 말씀하셨다. 조영자 씨는 알버커키 연합 감리교회 집사이시다. 호텔에 관한 상세한점은 웹사이트에서 알아볼 수 있다.
 호텔 주소: 1520 Candelaria NE, Albuquerque, NM 87107
 웹사이트: www.theambassadorinn.us
 (505)345-2547 ■



이석종 원로목사 시민권 취득

지난 1월 24일 알버커키 인터내셔널 발룬 피에스타 공원에 있는 Sid Cutter Pilots' Pavilion에서 미국 시민권이 수여되고 시민권 취득자가 충성맹세(Pledge of Allegiance)를 하는 선서식(Naturalization Ceremony)이 거행됐다. 이 자리에서 약 200여 명의 신청자가 미국시민권을 취득하여 미국 시민이 됐다. 한국인으로는 알버커키 연합감리교회의 이석종 원로 목사가 시민권을 취득하셨다. 이석종 원로목사는 80대 중반의 연령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건강에 보답하는 마음으로 지금까지 알버커키저널 신문사에서 직장생활을 하고 계시며 교회에서는 찬양대에서 베이스파트의 대원으로 봉사하고 계시다. 이 원로목사께서는 시민권 신청 서류작성에서부터 인터뷰에 이르기까지 모든 과정을 도와주신 김미경 권사에게 감사한다고 했다. ■



한인회 공지사항

- 한인회 (어버이회, 한국학교)는 임시휴무 기간을 아래와 같이 갖기로 했습니다.
 03/08/20-03/20/20.
- '2020년 세계한인차세대대회', 9월14일 개최... 참가자 모집을 시작합니다. 신청기간: 3월2일-4월30일. 상세한점은 아래의 웹사이트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globalkorea.jp/archives/13655



CUDDY & McCARTHY, LLP

Attorneys at Law

(http://cuddymccarthy.com)

우리 로펌은 1917년에 근간을 둔 다양한 분야의 법률대리를 담당하는 종합법률사무소로서 산타페와 알버커키에 사무실을 두고 있습니다. 한국어에 능통한 노영준(Jun Roh) 변호사에게 연락 주십시오.

1701 Old Pecos Trail, Santa Fe, NM 87505
 Tel: 505-988-4476



김재태목사 소천

라스크루세스 침례교회 담임목사이신 김재태 목사님이 2월 13일 하나님의 부름을 받으셨다. 장례예배는 La Paz-Graham's Funeral Home (555 W Amador Ave, Las Cruces, NM 88005)에서 집전되었다. 알버커키한미침례교회의 윤성렬목사와 갈릴리장로교회의 김민순목사, 산타페한인교회의 김석훈 목사께서 장례식에 다녀오셨고 한인회에서는 조화를 보내드렸다. ■



고 김재태 목사님의 장례식

김석훈 목사
산타페한인교회

뉴멕시코 목회자 연합 코칭 세미나에 참석했다가 알게 되신분이 김재태 목사님이십니다. 목사님은 텍사스에 사실때 안수집사로 열심히 교회를 잘 섬기시다가, 담임목사님의 추천으로 늦게 신학을 공부하시고 안수 받으셔서 라스크루세스 침례교회 담임목사로 부임하셨다고 합니다. 제가 세미나때 만나뵈 목사님의 첫인상은 인자하신 성품에 다정다감하신 성격이셨습니다. “교인이 많지는 않지만 늦게 목회를 시작한만큼 더 열심히 목회하고 싶다” 말씀하셨던 것이 인상에 남습니다. 그렇게 2년전 목회자 세미나때 한번밖에 뵈옵지 못했지만 소천하셨다는 소식을 듣고, 구글지도에서 장례식장을 검색해보니 왕복 10시간이 걸리는 거리였습니다. 뉴멕시코 최북단에서 최남단까지 종단을 해야 하는 상황이었지만 마지막 모습을 뵈오려고 가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런데 한인회장인 민명희 회장님께서 “그곳에 방문하는 차편이 있으니 앨버커키까지만 오시라.” 는 말씀에 감사하며 장례식을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도착해보니 라스크루세스 침례교회의 교인들과 근처 엘파소에서 오신 목사님들이 사모님과 유가족을 위로하고 계셨습니다. 미국 마이크 목사님의 사회로 장례식은 진행되었으며, 목사님을 회고하는 모든 분들이 목사님의 따뜻한 성품을 그리워했습니다. 그렇게 목사님을 그리워하는 모습들이 참 감동적이었던 장례식이었습니다. 주변인들에게 존경받으시고 숨이 멎을때까지 충성하신 고 김재태목사님은 하나님의 귀한 사람입니다. 많이 사랑하고 벌써 그리웁니다. ■

Rachel Youn(윤하나), 세인트 루이스 현대미술박물관/Gateway Foundation Award 수상

미주리주 세인트 루이스 소재 워싱턴대학을 summa cum laude(최우등)로 2017년 졸업했던 Rachel Youn(윤하나) 양이 세인트 루이스 현대미술관 및 Gateway Foundation의 Great Rivers Biennial 2020 Award에 3명의 최종 수상자로 선정되는 영예를 얻어 상금 20,000불과 함께 세인트 루이스 박물관 초청 수상 기념전시회를 5월부터 8월까지 3개월간 갖게 되었다. Rachel양은 수상 역사상 최연소, 최초 아시안 및 아직석사 학위를 받지 않은 후보자로서 쟁쟁한 100여명의 중견 미술가들 가운데 선정되는 영예를 안았다. Rachel 양은 알버커키 아카데미 재학 시절에도 각종 대회는 물론 2012년 전국대회인 Scholastic Art Award에도 입상하여 뉴욕 카네기홀에서 은메달을 수상하기도 하였다. 현재 세인트 루이스 워싱턴 대학에서 recruiter로 일하며 미술가로 활동중인 Rachel은 앨버커키한미침례교회 윤성열 목사/윤혜경 사모의 따님이시다. ■



오수나 너서리에서 정원관리 무료강의

앨버커키에서 가장 큰 회원으로 알려진 오수나 너서리(Osuna Nursary)에서는 2020년 봄철부터 시작하는 무료강좌 스케줄을 발표했다. Osuna University라는 별칭이 붙은 일반인을 위한 무료강좌는 예약이 필요 없으며 수강자에는 20% 할인권이 선물로 주어진다. 자세한 스케줄은 홈페이지에서 볼 수 있다. 홈페이지 주소: www.osunanursery.com ■

Osuna University
SPRING 2020

3/7	Tree Pruning
3/14	Grow Your Own Tea Garden
3/28	Insect Control with Bonide
4/4	Watering by the Seasons
4/11	Organic Gardening
4/18	Baker Morrow: Solving Garden Puzzles
4/25	Weeks Roses
5/2	David Austin Roses
5/16	ABQ Backyard Refuge Program
5/23	Judith Phillips: Backyard Habitat Garden
5/30	Intro to Beekeeping

삼일운동과 감리교회

3월 1일 하면 누구나 삼일절을 기억하고 또한 삼일운동에 앞장섰던 유관순 열사를 기억합니다. 삼일운동은 일본이 조선을 강제로 점령하던 시기에 평화적인 방법으로 조선 독립을 외쳤던 우리 민족의 항거 운동이었습니다. 일본군의 총칼 앞에서도 유관순 열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대한독립 만세”를 외치며 삼일운동을 이끌었지요. 한국 역사를 보면 일제 치하 때에 독립 운동을 했던 사람들 가운데 안중근 의사처럼 어떤 사람에게는 “의사”라는 호칭이 붙기도 하고 유관순 열사처럼 어떤 사람에게는 “열사”라는 호칭이 붙기도 합니다. “의사”는 안중근 의사처럼 무력으로 항거하다가 죽은 사람에게 붙이는 호칭이고 “열사”는 유관순 열사처럼 맨몸으로 저항하여 자신의 절의를 굳게 지키며 충성을 다해 싸운 사람에게 붙여지는 호칭입니다.

삼일운동을 이끈 유관순 열사의 정신적인 강인함은 당시 감리교회에서 있었던 교회 교육의 결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유관순 열사는 매봉 감리교회를 다니는 감리교인이었습니다. 매봉감리교회의 본래 이름은 “지령리 야소 교당”이었습니다. 당시에는 “예수”를 한문에 기초해서 “야소(耶蘇)”라고 적었지요. 이 교회는 한일병탄이 되기 전인 1901년에 세워졌습니다. 일본 제국에 의해 1910년에 강제로 조선을 일본에 병합시키는 일이 생기면서 매봉감리교회는 교회 안에 “진명학교”를 세웠습니다. 이 학교를 통해서 교인들 뿐 아니라 지역 주민에게 한글을 깨우치는 교육, 농촌이던 그 지역 사람들을 계몽시키는 교육과 더불어 독립 운동을 교육하였습니다.

유관순 열사는 어릴 때부터 학구열이 매우 높았습니다. 매봉감리교회를 통해서 성장한 유관순 열사는 이후 미국 감리교회에서 보낸 엘리스 선교사의 추천으로 이화 학당에 입학합니다. 당시 이화 학당은 오늘날 이화 여자대학으로 이름이 바뀌었습니다. 이화 학당은 미국 감리교회에서 보낸 선교사 스크랜톤 부인은 1885년 10월 19채의 한옥과 6200 여평의 땅을 구입하고 한국의 근대화 교육사업을 준비했지요. 당시에는 남자들을 위한 서당 중심의 교육만 있었고 여자들이 배운다는 것은 생각도 못하던 시절이었지요. 스크랜톤 선교사는 이듬해인 1886년 5월에 여학생 1명을 학생으로 얻게 되면서 오늘날 이화여자 대학, 이화 여자 고등학교의 모태인 “이화 학당”을 시작한 것입니다. 그리고 1910년에는 초등부, 중등부, 대학부를 설치하면서 한국에서는 최초로 여성을 위한 현대적 교육기관이 세워진 것입니다. 이화 학당의 대학과는 1925년에 이화 대학으로 승격시키고 1933년에는 현재 신촌에 신축 건물로 이사를 해서 오늘날 이화 여자대학이 된 것이지요. 이화 학당은 여성들에게 그리스도를 전하면서 많은 여성 민족 지도자들을 배출해내는 데에 큰 공헌을 했습니다.

김기천

알버커키연합감리교회
담임목사



1919년 유관순 열사는 서울에서 이화 학당을 다니면서 삼일운동에 참가를 했습니다. 그러다가 일제에 의해 학교가 휴교를 하게 되자 천안으로 돌아와 고향 아오리 장터에서 4월 1일에 삼일운동을 일으킨 것입니다. 유관순 열사 외에도 삼일운동 때에 읽었던 독립선언문에 목숨 걸고 서명한 민족대표 33명이 있었습니다. 이 민족대표 33명 중에 이필주, 박동완, 오화영, 최성모, 신석구, 신흥식, 박희도, 김창준, 정춘수 등 9명이 모두 감리교 사람들이었지요.

한국 감리교회는 선기 초기부터 민족과 나라를 사랑하는 데 앞장섰습니다. 감리교회는 독립협회와 만민 공동회, 황성 기독교 청년회를 주동하였지요. 배재학당 지하실에 있었던 현대식 인쇄시설을 갖춘 감리교 출판사에서는 한국 최초의 일반 신문인 “독립신문”, 윤치호 박사의 “경성신문”, 이승만 박사의 “매일 신문”이 인쇄 발간되었습니다. 배재학당은 1885년에 감리교 선교사인 아펜젤러 목사가 세운 한국 역사 최초의 현대식 교육기관이었습니다. 당시에는 유학교육 기관인 성균관과 서당만 있었지요. 1895년에 배재학당에는 대학부 4년 과정이 있었고 영문과와 한문과가 있었습니다. 이승만 박사는 당시 배재대학 영문과 학생이었지요. 1886년에는 배재학당 안에서 “협성회”와 “독립협회”가 조직되었습니다. “독립협회”는 독립문 건립과 독립관 건립을 추진하기도 했으며 독립문 건립 정초식 때에는 아펜젤러 목사의 축사 뿐 아니라 탁사 최병현의 “독립가”가 배재 학당 학생들에 의해 울려 퍼지기도 했지요. 배재 학당은 현재 배재 고등학교와 배재 대학이 되었습니다. ■

Acupuncture & Herbs Pain Clinic
Holistic & Alternative Medicine



장상순 한의원
Dr Sangsoo Chang
DOM, DSOM, Dipl OM, Dipl Ch, Lac

보험회사 Authorized Providers:
Cigna, Presbyterian, Multiplan, Optum,
United healthcare, New mexico health
connection, Out of net work, Molina.

2617 Juan Tabo NE #B
Albuquerque
New Mexico 87112
www.drchang505.com

505-255-0878
505-710-7504
sangsoonc@gmail.com

앨버커키

딸 내외가 정년에 맞춰 이민할 수 있게 온갖 절차를 다 밟아 놓는 바람에, 하직 인사도 두루 올리지 못한 채 광주를 떠나 앨버커키로 왔다. 뉴멕시코 주에서 가장 큰 도시, 약 80만 명이 사는 곳이다. 1706년, 스페인의 식민지였던 뉴 스페인은 스페인의 공작으로 군인이던 라 쿠에바가 총독으로 임명되어 와서 다스리고 있었다. 사철 물이 흐르고 비옥한 토양 그리고 나무가 많은 강기슭에 스페인 이주민들의 마을이 형성되었을 때, 마을의 이름을 그 당시 총독의 출신 지역 이름에서 따와 오늘의 앨버커키가 되었다. 앨버커키를 제대로 발음하는 사람은 뉴멕시코 사람이라는 농담도 있다.

주의 중심부에 위치하면서 거의 전부가 해발 1,600미터 고지에 형성된 도시로, 콜로라도 주의 서남부에서 발원하여 뉴멕시코 주를 관류한 다음 멕시코 만으로 빠지는 리오그란데가 시의 북쪽에서 남쪽으로 흐른다. 건조하기 때문에 수분이 결핍되는 것을 방지하려고 걷기를 하는 사람들이 물병을 차고 다닌다. 사철이 분명하고, 햇볕이 쨍쨍 내리쬐는 날이 한 해에 300일이 넘으며, 밤낮의 일교차가 매우 심하다. 강한 햇볕 탓에 선블록, 모자, 색안경 등은 생활 필수품이다.

서쪽에는 탁상지가 자리잡고 있고, 3,200미터의 거대한 샌디아 산맥이 북동쪽을 감싼다. 탁상지는 볼 때마다 올라와 보라고 나를 유혹한다. 지각의 변동으로 생겼다는 샌디아의 바위들은 해질 무렵이면 수박 무늬 핑크빛을 띤다. 240개가 넘는 오솔길에 사람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고, 흑곰을 비롯한 많은 야생 동물들이 살고 있는 장대한 산맥. 해발 1,163미터와 3,163미터에 설치된 터미널을, 세상에서 가장 긴 케이블카 샌디아피크 트램웨이가 이삼십 분 간격으로 운행하며, 편도에만 15분이 소요된다.

앨버커키는 오래 전부터 천혜의 요양지로 알려진 곳이며, 주변에는 인디언 푸에블로 8개 부족이 오래 전부터 살고 있다. 항생제가 없던 시절, 천식이나 폐결핵 환자들이 깨끗하고 건조한 공기 속에서 요양하며 치료하려고 왔다가 눌러 앉은 곳. 1930년에는 한경직 목사가 프린스턴 신학교에서 석사 학위를 받은 뒤 이곳에 와서 폐결핵을 치료하고 귀국하기도 했다. 1926년에 개통되어 시카고와 산타 모니카까지 4천여 킬로미터를 이어주는 미국의 66번 도로가 앨버커키에서는 센트럴 에비뉴가 되는데, 그 길은 ‘폐결핵 에비뉴’라는 별명도 가지고 있다.

폐결핵이 이 도시에 많은 유산을 남겼다. 의료 센터나 의학에 관련된 학교의 설립, 특유의 건축 양식, 인구의 증가, 장애를 극복한 다음 비장한 노력으로 괄목할 만한 일을 이뤘을 때 느끼는 성취감 등의 토대를 제공했던 것이다. 100년이 다 된 앨버커키 소극장에서는 12월이면 뮤지컬 ‘화이트 크리스마스’를 공연한다.

이정길

전남대학교 명예교수
수필가



겨울의 평균 기온이 섭씨 영하 2.2도에서 영상 7.7도이니, 나 같은 은퇴의 삶을 사는 사람에게는 더없이 살기 좋은 곳이다.

해마다 10월 첫 토요일부터 다음 주 일요일까지 9일 동안 열리는 앨버커키 국제 열기구 축제가 2019년에 48번째를 맞았다. 20여 개 나라의 사람들이 한 곳에 모여 550개도 더 되는 갖가지 모양의 풍선을 띄운 축제였다. 풍선들은 ‘앨버커키 상자’를 따라 직사각형을 그리며 날아다닌다. 그 수직 상자는 시월 초면 나타나는 예측 가능한 공기의 흐름이다. 샌디아 산맥에서 내려온 찬 공기가 밤새 가라앉으면 땅 위에서 북풍을 만들고, 이삼백 미터 위에서는 바람이 반대로 불게 만든다. 행사 마당을 떠난 풍선들은 남쪽으로 가다가 위로 올라간 다음 북쪽으로 길게 날고, 다시 내려와 남쪽으로 향하여 제 자리로 돌아온다. 광상적인 색깔을 띤 풍선들이 상쾌한 이른 아침의 호박색 하늘에서 꽃피우는 장관을 보려고 새벽마다 10만여 명의 관광객이 찾는 축제다.



여름 한낮이면 사람의 체온을 웃도는 더위에 숨이 턱턱 막히기도 하지만, 산들바람이 늘 불어 그늘에만 들면 시원하고, 해만 지면 급작스레 기온이 떨어져 기운을 되찾게 한다. 숲이 무성한 강가와 달리 산아래 높은 지대에는 모기나 파리 같은 날벌레들이 없어 야외 식탁에서 저녁을 먹으며 늦도록 얘기를 나눈다.

눈이 2, 3센티미터만 내려도 초중고 모든 학교가 휴교하든지 등교 시간을 늦추는 곳이다. 샌디아 산맥의 북쪽에는 좋은 스키장이 설치되어 있어도 앨버커키에 내린 눈은 오래 가는 법이 없이 바로 녹아 버린다. 가까운 곳에 있는 아카데미의 울타리 십리 길은 사철 걷기에 알맞아 내가 즐기는 산책로다. 열기구 축제 때의 풍선들이 자연력을 이용하여 사람들이 만들어 내는 장관이라면, 사진 작가들이 그토록 좋아하는 앨버커키의 저녁놀은 자연 자체가 빚어내는 장관이다. 베티 피어스는 ‘좋은 날씨’라는 단어로 이곳의 날씨를 찬미한다.

신은 집이나 나 같은 사람들을 위해 앨버커키를 만들었다;
오늘, 집이 스키 타러 간 사이 나는 일광욕을 했다! ■

첫번째 집회

나의 하나님

본문: 창세기 45:1-8

강사: 이훈경 목사
녹취요약: 구경범 집사

이번 집회의 주제는 “성도의 삶의 자리는 거룩합니다” 입니다. 내가 믿는 하나님은 과연 어떤 하나님이셨는지 오늘 저녁에 여러분들에게 좀 도전을 하려고 합니다. 제가 한 살 때부터 우리 집이 예수님을 믿기 시작했습니다. 여기에도 모태신앙이신 분들이 많이 계시죠? 그런데 초, 중 학교를 다니면서도 정말 하나님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지 생각을 못 했었습니다. 심지어는 목사님께서 설교를 하실 때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 하나님이 저렇게 여러분이신가 보다 라고 생각을 했던 적도 있었습니다. 주일 학교 다닐 때 제가 얼마나 개구쟁이였는지 교육 권사님이 기도하실 때 아버지를 몇 번이나 말씀하시는지 한번 세어보자 했는데 한 50 몇 번을 하셨습니다. 저는 그렇게 장난꾸러기였습니다.



오늘 저와 같이 이 창세기에 나오는 이 말씀을 같이 보시면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는 그런 시간이 되시기 바랍니다. 신앙생활을 오래 해도 정말 하나님이 나의 삶의 중심이 되어 나를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 이시라는 것을 고백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이 내 속에 있는가? 제 말씀을 들으시면서 또 여러분의 삶을 돌아 보시면서 하나님은 정말 나에게 어떤 분이셨는가? 그 하나님은 나를 어떻게 인도해 오셨는가 한번 깊이 생각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창세기 12장에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아 너는 네 본토 친척 아버 집을 떠나서 내가 지시한 땅으로 가거라” 말씀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은 무조건 하나님의 명령은 듣고 따랐습니다. 저희들 대부분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것이 아브라함의 믿음으로 생각하고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정말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이제 네가 나를 사랑하는 줄 알았노라” 하시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인정하시는 그 때는 언제였습니까? 굉장히 오랜 시간이 지나 아브라함이 100세 되어 나온 아들 이삭을 하나님께 바친 순간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그의 믿음의 절정에 이르러 신앙고백을 하게 하셨던 것처럼 아브라함을 끊임없이 고쳐 가면서 쓰셨던 것처럼. 하나님은 끊임없이 저희들도 고쳐가면서 쓰신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의 실수를 깨닫게 하시고 성도들을 통해서 깨우쳐 주시고 집회에서도 깨닫게 하셨습니다. 지금 제가 은퇴를 하기까지의 기간을 돌아보면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이런저런 방법으로 고쳐 주셨고 또 지금도 고쳐가시는 것을 깨닫습니다. 제가 아직까지도 실수가 많고 또 많이 부족합니다. 우리 인생은 살아가면서 끊임없이 거듭나야 합니다.

그때마다 나의 삶을 인도하신 하나님을 고백하면서 살아가야 하는 것이 우리 믿음의 생활이라 믿습니다. 저는 그렇게 고침을 받고 지금도 계속해서 고침을 받고 있습니다.

저도 고쳐 가며 쓰시는 하나님을 고등학교 입시를 앞둔 중학교 3학년 때 체험하게 되었습니다. 요즘에는 큰 병이라고는 할 수 없지만, 당시에 신장염이라는 병을 앓게 되었는데 아침에 일어나면 손, 발, 얼굴이 붓고 숨이 차올라 고등학교 입학시험 공부를 할 수가 없었습니다. 저는 고향이 인천시 외곽 시골이었습니다. 그리고 제 부모님은 농사를 지으셨습니다. 생활 형편이 인천 도립병원 병원에 갈 수 있는 여건이 되지 않았습니다. 신장염으로 인해 얼굴이 부은 상태로 며칠이 지났는데 제 친구 중 하나가 똑같은 병으로 인천도립 병원에 입원했다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저는 마음으로 나도 좀 병원에 가서 입원해서 치료를 좀 받았으면 그런 생각도 가지고 있었는데 얼마 있더니, 그 친구가 세상을 떠났다는 소식이 들렸습니다. 그 일

후에 어머니께서 새벽에 저를 깨우셔서 매일같이 새벽기도를 다니자고 하셨습니다. 저는 이 일을 생각할 때마다 정말 하나님께서 하셨구나 하고 고백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저의 동네에 의원 한 분이 계셨는데 제 소변검사를 하시고는 이거는 큰 병원에 가야 되는데... 하시면서 그래도 일단 주사라도 맞고 가라고 하면서 주사를 놓아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의원을 다녀오고 점점 병이 낫기 시작하더니 얼마 지나지 않아 완전히 치료가 되었습니다. 저는 그 당시 아픈 몸을 이끌며 새벽기도를 다니면서 하나님 “저 살려주시면 목사가 되겠습니다” 하고 기도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결국 제가 신학교를 가고 목회를 하게 되었습니다. 육신의 질병이던, 마음의 질병이던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저를 고치 시면서 여기까지 오게 하셨습니다. 저의 어머니의 간증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저의 어머니는 “하나님 한 분으로 족하다. 하나님이 우리 삶의 주인이시니 나는 정말 기쁘다”라고 고백을 하시던 분이셨습니다.. 저희 어머니는 새벽 기도를 꾸준히 드리셨습니다. 저희 집은 7남매이고 제가 여섯 번째 입니다. 저희 큰 형님이 의용군으로 나가게 되었습니다. 어머니께서는 큰아들이 의용군으로 나간 이후부터 끊임없이 새벽 제단을 쌓으셨는데 하루는 새벽 기도 100일째 되는 날 하늘 문이 열리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셨는데 “네 큰아들이 돌아온다”라는 말씀을 세 번 들으셨습니다. 그 말씀을 들으신 후 너무 기쁘셔서 큰아들이 돌아온다고 하시면서 온 동네를 돌아 다니셨는데 예수를 안 믿는 사람들에게 미친 사람 취급을 당하셨습니다. 저는 저희 형님이 돌아오던 때를 기억하는데 제가 여섯 살이던 해의 새벽이었습니다. 저희 집 울타리 밖에서 “저 돌아왔어요!, 저 돌아왔어요!” 라는 큰 소리가 나는데

세번째 집회

증인을 찾으시는
하나님

강사: 이훈경 목사

녹취요약: 이경화 장로

본문: 사도행전 1:8

여러분은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의하면 예수님의 말씀에 성령이 임하면 권능을 받고 땅끝까지 이르러 내증인 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 믿고 살아가면서 받은 은혜를 이웃에게 전해야 합니다. 뉴멕시코에도 고사리 나는 곳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애리조나에도 고사리 나는 곳이 있습니다. 고사리를 많이 따왔다고 얘기하는 사람에게 고사리 나는 곳이 어디냐? 라고 물으면 어물어물해버리고 잘 가르쳐주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년에도 자기 혼자 가서 고사리를 많이 따오려는 욕심때문일 겁니다. 예수 믿고 받은 은혜를 혼자만 재미보려는 사람은 고사리를 혼자만 따오려는 생각으로 남에게 얘기하지 않는 그런 고사리 심보를 갖으면 안됩니다. 은혜를 나누어 가지려는 생각을 가져야 합니다.

이전 년 전과는 달라진 지금 세상은 말씀 전도하기 위해 땅끝까지 가지 않아도 땅끝에서 온 외국 사람을 많이 접할 수 있는 세상이 되었습니다. 제가 살고 있는 애리조나주에서도 먼 곳에서 온 많은 외국 사람을 만납니다. 월남사람도 많이 만나는데 이들과 얘기해보니 그들이 한국을 아주 좋아한다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그 이유를 알아보니가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그중에 제일이 월남 축구협회의 축구팀을 맡고 있는 박항서 감독의 영향이 아주 크다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그가 월남 축구선수들을 아끼고 사랑하는 마음이 어찌나 컸는지 많은 사람이 감동해서 박항서 감독의 나라 '다이한' 한국이란 나라가 가장 가보고 싶은 나라라고 말할 정도로 젊은이들은 한국을 좋아하게 됐다고 합니다. 그는 월남에 갈때 '예수께서 내게 주신 은혜를 나의 삶으로 월남사람에게 보이리라!' 이런 결심을 하고 선교사의 심정으로 가서 감독의 역할을 한 결과 축구팀을 강팀으로 만든것에만 끝이지 않고 한국 국위 선양까지 하게 된 것입니다. 구약에 나오는 요셉도 하나님 은혜를 그의 형들 앞에서 전한 것을 잘 압니다. 형님들이 저를 팔아서 애굽에 온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하기 위해 미리 저를 애굽에 보내어 총리로 만드셨다라고 고백했습니다. 여러분께서도 이와 같이 받은 은혜를 전해야 합니다. 교회와 목사님과 하나님 선전을 하시고 받은 은혜를 자랑하시길 바랍니다.

저의 어머니께서는 매일 새벽기도를 드리는 신앙생활을 하셨지만 저의 아버님은 일 년 동안 교회에 단지 세번밖에 안가시는 교인이셨습니다. 아버지께서 교회에 기쁨으로 드린

저희 형님이 거제도 수용소에 있다가 포로 교환을 통해 집으로 돌아 오시게 된 것이었습니다. 저희 동네에서 의용군으로 나간 분이 여러 명 있었는데 그 중에서 한 분도 돌아오지 못하고 저희 형님만 돌아온 것 이었습니다. 저희 형님이 돌아온 것을 보고 동네 사람들이 그제서야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는 저희 어머니의 말씀을 믿게 되었습니다. 이것을 계기로 동네 사람들이 교회를 보는 눈이 달라지게 되었습니다. 저희 아버지께서는 세례는 받으셨지만 1년에 교회를 세 번(부활절, 추수감사절, 성탄절)만 나가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분들이라도 절대로 과소평가하지 마시고 격려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처음 목회하던 시절 부활절날에 1년에 세번 교회에 나가시는 분들도 격려를 해드려야 한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꽤 오랜 세월이 흐른 후에 어떤 분을 만나게 되었는데 그분의 말씀이 제가 부활절에 했던 그 설교말씀을 듣고 용기를 내어서 그때부터 신앙생활을 시작하게 되었고 현재 안수집사가 되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이분처럼 하나님께서는 저희들을 어떻게 사용하실 줄 모릅니다. 하나님께서는 저희를 고쳐서 쓰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요셉이 고백하는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셨나요? 요셉의 고백은 “내 삶은 하나님의 장중에 있음을 제가 믿습니다. 제 삶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라는 고백이었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마지막 하나님 앞에 이르기 전까지 하나님이 진정 나의 주인이십니다 라고 하는 이 고백,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는 이 고백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입니다. 믿음 생활 10년 하신 분도 있고 20년 하신 분도 있고 30년 하신 분도 계시죠? 어떤 분은 신앙생활 시작한 지 얼마 안 되었지만 나의 하나님이라고 깨닫고 고백하시기도 하지만 어떤 분은 신앙생활은 오래하셨지만 아직까지도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이 안되는 분들도 계십니다. 교회는 나오시지만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을 못하고 그냥 내가 교회에 나가주는 것으로 생각하고 계십니다. 저희가 요셉의 이야기를 통해 내 인생의 전체를 하나님께서 주관하고 계신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을 순간 순간보게 되면 이해하기 어려운 것, 고통스러운 것, 슬픈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어려운 일도 많이 있습니다. 왜 하나님 나에게 이런 일을 주실까? 왜 이렇게 어려운 일을 주실까? 라는 생각이 들게 됩니다. 그러나 시간이 흐르고 지난 일을 돌이켜 보면 그때에 힘들었던일, 어려웠던 일, 괴로웠던 일 이 다 하나님의 섭리 속에 있었구나 하는 그런 고백을 하게 됩니다. 너희가 감당할 시험밖에는 당한 것이 없나니라고 말씀하셨고 어려움을 당할 때는 피할 길도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여러분들도 요셉처럼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을 간섭하시고 여러분의 삶을 인도하시며 하나님께서 나의 삶의 주인, 내 생명의 주인이심을 고백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요셉이 야곱에게 두 아들을 데리고 가서 영적인 축복을 받게 했던 것처럼 여러분들도 여러분의 자녀들이 그들의 하나님을 만나고 고백할 수 있도록 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

것은 수수빋자루 두개뿐이었다고 어머니를 말씀하셨습니다. 아버님이 세상을 떠나실때 숨을 거두었다고 생각했는데 다시 깨어나셔서 천국에 가셔서 수수빋자루 두개가 자신이 거할 방 안에 있는 것을 보셨다는 얘기를 하시고 아들과 며느리에게 ‘예수 잘 믿어라’라는 유언을 하신 뒤에 숨을 거두셨습니다. 이로 인해 저의 4형제는 모두 하나님을 더 열심히 믿게 되어 모두 목사가 되었습니다. 일 년에 세번 교회 나가시는 작은 믿음이었으나 돌아가시며 큰 열매 맺는 전도를 하셨습니다.

제가 미시간 디트로이트연회에서 은퇴를 할 때 27명의 목사와 함께 은퇴 했는데 은퇴식장에서 각자 3분씩 소감을 말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짧은 영어로 무슨 말을 해야할지 고민하다가 한국선교역사를 얘기했습니다.

“저는 한국 출신의 한인교회 목사로 은퇴하게 된 경위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1885년 여러분의 나라에서 한국에 두 선교사를 보냈습니다. 감리교회에서 아펜젤러 선교사를, 장로교회에서 언더우드 선교사를 보내어 두 분이 부활절 아침 인천항구에 발을 디딤으로 한국에 기독교 선교가 시작되었습니다. 아펜젤러 선교사가 세운 작은 시골 교회에서 저의 가정은 하나님을 믿게 되었고 그 집의 넷째 아들인 저는 목사가 되어 미국으로 이주해서 한인교회를 섬기다가 이 자리에서 이렇게 퇴직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선조의 믿음의 열매로 이 자리에 제가 서 있게 된 것입니다”라고 하자 그 자리에 있던 모든 목사님들이 기립박수를 해주신 기억이 납니다.

옛 선교사가 전해준 희생이 있었기에 한국 기독교가 오늘에 이른 것을 생각하면 얼마나 고마운 일인지 모릅니다. 언더우드 선교사가 한국에 와서 선교 생활 1년을 한 뒤에 선교사역을 고국에 보고하는 편지 가운데 들어 있는 기도문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보지 않는 조선의 마음

주여! 지금은 아무 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주님, 메마르고 가난한 땅

나무 한 그루 시원하게 자라 오르지 못하고 있는 땅에
저희들을 옮겨와 심으셨습니다.

그 넓고 넓은 태평양을 어떻게 건너왔는지

그 사실이 기적입니다.

주께서 붙잡아 뚝 떨어뜨려 놓으신 듯한 이곳

지금은 아무 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보이는 것은 고집스럽게 얼룩진 어둠뿐입니다.

어둠과 가난과 인습에 묶여 있는 조선 사람뿐입니다.

그들은 왜 묶여 있는지도, 고통이라는 것도 모르고 있습니다.

고통을 고통인줄 모르는 자에게 고통을 벗겨주겠다고 하면

의심부터 하고 화부터 냅니다.

조선 남자들의 속셈이 보이지 않습니다.

이 나라 조정의 내심도 보이지 않습니다.

가마를 타고 다니는 여자들을 영영 볼 기회가 없으면 어쩌나 합니다.

조선의 마음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해야할 일이 보이질 않습니다.

그러나, 주님, 순종하겠습니다.

겸손하게 순종할 때 주께서 일을 시작하시고

그 하시는 일을 우리들의 영적인 눈이 볼 수 있는 날이 있을 줄 믿나이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라고 하신 말씀을 따라

조선의 믿음의 앞날을 볼 수 있게 될 것을 믿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황무지 위에 맨손으로 서 있는 것 같사오나

지금은 우리가 서양귀신 양귀자라고 손가락질 받고 있사오나

저희들이 우리 영혼과 하나인 것을 깨닫고, 하늘 나라의 한 백성, 한 자녀임을 알고 눈물로 기뻐할 날이 있음을 믿나이다.

지금은 예배드릴 예배당도 없고 학교도 없고

그저 경계의 의심과 멸시와 천대함이 가득한 곳이지만

이곳이 머지않아 은총의 땅이 되리라는 것을 믿습니다.

주여! 오직 제 믿음을 붙잡아 주소서!

여러분 우리가 살아온 땅이 이런 땅이었습니다. 고집스러운 땅이었습니다. 암흑의 땅이었습니다. 이런 땅에 복음의 씨앗이 뿌려져서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되었고 지금은 미국에 와서 살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왜 미국에 보내셨을까요? 그저 잘 먹고 잘 살라고 보냈을까요?

제가 요한복음 12장 43절을 읽다가 스스로를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예수께서 바리새인을 지적해서 하신 말씀입니다.

‘저희가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사랑하였더라’

제가 예수 믿고 목사가 되었기 때문에 더 편하게 살고 더 복을

많이 받고 산다는 사실에 취해있지 않는가?

저를 되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많은 축복을 받았습니다.

미국에 살고 있다는 그 한 가지만으로도 큰 축복이 아닐 수

없습니다. 아프리카 케냐에 선교일로 다녀온 일이 있습니다.

어린이들이 물병을 들고 다니며 물을 마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놀라운 것은 그 병물이 짐승들도 마시는 웅덩이 흙탕물을 떠서

마시는 것이었습니다. 전 세계에서 수돗물 마시고 맑은 물에

샤워할 수 있는 사람이 전세계인구의 3%에 불과하다는 것을

생각한다면 얼마나 우리는 축복된 삶을 살고 있는지 감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수돗물도 만족 못해 이제 병 물을 마시고 사는

저희들이 축복에만 취해 산다면, 이웃에게 우리가 받은 축복을

전하지 않고 산다면 고사리 혼자 따라가려는 고사리 심뽕과

다를게 없는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지금도 예수를 증거하는자, 하나님의 능력을

증거하는자를 찾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이웃, 외국인이든

미국인이든, 친구든 가족이든지 우리가 받은 축복을 증거하는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

눈 질끈 감고



나정자

연합감리교회
은퇴 감리사 사모/ 수필가

2019년도 부흥회가 열렸다. 한국에서 오신 강사 목사님은 진한 전라도 버전을 곁들여 가며 설교를 하셨다. ‘어서 계속 말씀 하시오소서’ 하는듯 하는 조용한 회중을 향해 목사님은 ‘오매! 설교는 듣고 계시는 거지요 이-?’ 해서 한바탕 환기를 시키곤 하시는 것이었는데.

오랫동안 듣지 못했던 전라도 버전이 이 강사 목사님을 통해 제대로 유창하게 전개되면서 회중들의 경직된 분위기에 약효가 드러나기 시작했다. 설득력 있는 설법엔 재미, 감동, 메시지 3요소가 함께 있어야 한다던가. 진화된 새 스토아 설법에 진한 전라도 버전까지를 더하니 적당히 퍼즐 되어 가는 것 같았다.

목사님의 모친께서는 초취 부인에게서 난 세 아들을 가진, 엄청 어려운 가정에 후취로 들어가 6남매를 보셨다는데. 학교에 다니지 않았던 어머니께서는 손가락이 갈퀴리 되시도록 닥치는 대로 일하셔서 조금씩 농지를 사들이고 집안을 세워 가셨다는 것이었다.

허나 세월이 지나며 농지가 커 가는가 하면 초취 부인에게서 난 장성한 세 아들들이 노상 드나들며 땅을 내놓으라고 어머니 앞에 행패를 부리곤 하더라. 괴로워 하시던 어머니는 산너머 십리 밖에 있는 교회 전도사님께 가서서 내가 저희들 먹여 키우고 공부시켜 준 것 만도 얼마나 힘든 일인데, 무슨 땅을 내놓으라고 저 행패인지,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고 하소연 하시는 어머니께 좀 완행열차 풍이신 총각 전도사님은 눈 질끈 감고 그저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갚으라 (롬12:21)’고 사-알-살 달래며 일러드리더라는데.

하루가 멀다하고 찾아 와서는 왈그락 댕그렁 어머니께 행패 부리는 ‘사건’ 들을 보아오던 강사 목사님은 그때 7살. ‘엄니, 내가 좀만 크면 저사람들 다 쳐 버릴거랑께! 엄니 원수는 내라 다 갚을께!’ ‘를 늘 입에 달고 살았더라나.

어떻게? 어떻게 선으로 악을 갚는다는 말일꼬?... 오랫동안 밤잠을 고사하고 고민하시던 어머니는 에라! 결단을 내리시고 그 행패들에게 당신 살덩어리 같은 땅을 덤석 덤석 떼어 주시고는 빨리 커서 엄마 원수를 갚겠다고 버르는 아들에게 총각 전도사님께서 가르쳐 준 원수 갚는 법을 ‘절대 비법’으로 선포하시더라는 것이었다. 어머니에게 있어서 악을 이길 수 있는 선은 아들이 화-악! 판검사가 되 뿌리는 것이었다.

그렇게 선으로 악을 갚기로 내심 결정을 본 엄마는 ‘애 동조야,

네가 커서 그 행패 부리는 형들을 쳐 버리는 것을 그 형들의 자식들이 보면 또 그 아이들이 커서 너를 칠 것이고, 또 너를 치는 것을 네 자식들이 보고 크면 네 자식들이 그 자식들을 쳐서 원수를 갚고자 할 터이니, 그렇게 되면 이 백씨 집안에 칼부림 끝 날 날이 있겠냐? 그러니 그게 아니다. 애야, 네가 확- 판검사가 되 뿌리는 거다 야. 판검사! 알것제? 판검사!’

그 후로 엄마는 아들을 볼 때마다, 길을 갈 때나, 잠자러 누울 때나 아니 잠들어서 자다가도 자는 아이 이마를 더듬더듬 더듬으시면서 ‘너는 확- 판검사가 돼 뿌려야 혀!’ 에 얼마나 여러 번 잠을 깨었었는지, 그저 가까이 보기만 하면 ‘넌 판검사, 판검사가 돼 뿌려야 한다 이-? 판검사!’ 가 어머니 입술을 완전 장악해 버린것 같더라.

십 리 밖에 떨어져 있는 교회에 삼일예배에 다녀오는 밤길은 그리 쉬운 게 아니었다. 십 리 밤길을 헤쳐 돌아 올라치면 선으로 악을 갚아야 할, 반드시 판검사가 되어야 할 아들의 손을 부러질 듯 짝 쥐어 잡으신 어머니는 또 그 행패들에게 떼어주신 땅, 아니 역을 하게 뺏긴 듯한 땅, 당신 살덩이 같은 땅 생각이 마치 머리 푼 밤귀신처럼 떠 올랐는지 또 판검사 주제곡을 시작하시려 하자, ‘엄니, 이번엔 제가 해 부릴랴요’ 하며 ‘넌 판검사가 돼 뿌려야 혀! 혀! 혀! 혀! 혀!...’ 어머니 대신 소리친 아들의 목청은 시도 때도 없이 어머니를 헛갈리게 하는 머리 푼 귀신을 한 방에 처리해 버리는가 하면, 금방 숨질 것 같던 어미의 가슴을 뺑! 뚫어 버리고는 깊은 밤 산허리를 막무가내 지치지 않고 돌고 또 돌더라나....

그런데

오랜 세월이 지난 후에 돌아보니 원결 언제 어떻게 완결 처리된 것인지 원수 갚는 일은 전혀 흔적도 없고, 오직 남은것은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갚으라’ 라는 지고의 법을 따르시던 어머니의 꿈만이 불철주야 살아서 생명으로 생명으로 일마다 때마다 눈 밝고 귀밝으신, 전능하신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더라는 간증이었다.

하나님의 법, 지고의 법은 이미 세상을 이겼음이니, 할렐루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롬12:21)

아-멘.

영어이야기 7



이상목

전직 교수

아마추어무선사(K7MOK)

태양과 달은 우주천체중 우리와 가장 친근한 천체중 하나입니다. 태양과 달은 영어로 표기할때 대명사이기 때문에 보통 대문자로 씁니다. 그리고 Sun과 Moon은 항상 the Sun과 the Moon으로 정관사가 붙는데, 지구는 꼭 그렇지도 않습니다. “The earth rotates on its axis once every 24 hours.”(지구는 24시간에 한번씩 자전합니다). Earth is the third planet from the Sun. (지구는 태양의 3번째 행성입니다), “도대체 넌 무얼하고 있니?” 할때에도 the없이 “What on earth are you doing?”으로 표현합니다. 그런데 같은 뜻으로 world를 사용하면 항상 the가 붙어, “What in the world are you doing?”입니다. 다른 행성인 수성(Mercury), 금성(Venus), 화성(Mars), 목성(Jupiter), 토성(Saturn), 천왕성(Uranus), 해왕성(Neptune)에도 정관사 the없이 사용합니다. 태양을 나타내는 단어로 라틴어에서 온 solar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solar energy (태양에너지), 햇빛을 가리는 양산인 파라솔(parasol)은 막는다는 뜻인 parare와 태양의 뜻인 sole이 영어화된 단어입니다. 달을 나타내는 단어로는 역시 라틴어에서 온 lunar가 있습니다. lunar calendar(음력), Lunar New Year(음력설)을 들수있습니다. 태양계(solar system)의 행성들은 일직선상에 있지는 않지만, 거의 같은 면(plane)에 있습니다. 이 면을 ecliptic이라고 부르며, 달이 이곳에 들어왔을때 일식이나 월식이 일어나므로 일식이나 월식을 eclipse(이클립스)라고 하는데, 라틴어에서 온 단어로, 나타나야 되는데 나타나지 않음을 뜻합니다. 모든 행성(planet)들이 거의 일직선으로 나타나는 다음번 시기는 2492년 5월6일 입니다(수십세대가 흘러야 합니다). 이때는 밤하늘에 이들 별들이 거의 일직선상에 다 나타나는것을 볼수있겠습니다. 지구의 자전은, 도는 축(axis)이 지구자체에 있기때문에 rotation을 사용하지만, 태양주위를 도는 공전은 태양을 축으로 돌기 때문에 revolution이라 합니다. Figure skate선수도 자기몸이 축이되어 한곳에서 돌때는 rotation이 됩니다. 자동차계기판에 있는 rpm(revolution per minute)은 엔진의 crankshaft의 일분간 회전수를 나타냅니다. 자동차가 신호등에서 기다리고 있어도 엔진은 도는데, 승용차는 대개 600~1000 rpm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빨간선을 넘으면 위험하니까 엔진제작성 최대치이상으로 나오지않게 장치가 되어있습니다.

우주는 아래위 좌우가 없기때문에, 지구가 약 23.5도(일정치는 않음) 기울어져 있다는 말도, 태양을 도는 지구의 궤도면에 대해 23.5도 기울어져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지구엔 낮과 밤이있고, 4계절이 있게됩니다. 태양자체도 지구궤도면에 대해 약 7도가량 기울어져 둥니다. 지구는 북극을 위로하고 옆에서보면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돌며(자전), 북극위에서 아래로 내려다볼때 지구는 시계반대방향

(counterclockwise)으로 자전을 합니다. 지구는 또한 같은 방향인 시계반대방향으로 태양을 둥니다. 그리고 북반구에 위치해 있는 우리나라에서 보는달과 호주(남반구)에서 보는달의 모양은 반대로 보입니다. 지구가 휘었다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우리나라에서의 초승달(☾)은 호주에서는 그믐달(C) 모양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반달도 모양이 서로 반대로 보입니다. 적도(equator)에서는 초생달이 U자형이나 거꾸로된 ㄱ로 보입니다. 영어로 달이 차고 기우는것을 waxing and waning으로 표현합니다. 초승달은 waxing crescent 그믐달은 waning crescent입니다. 달도 지구의 북극을 위로놓고 내려다볼때 시계반대방향으로 둥니다. 달은 지구를 도는 궤면과 약 5.14도 기울어져 있습니다. 태양을 도는 행성(planet)들은 지구가 도는 방향과 같이 시계반대방향으로 둥니다. 금성이 예외로 지구와 반대방향인 시계방향(clockwise)으로 둥니다. 먼 옛날에 어떤 커다란 물체가 금성에 충돌하여 자전축을 거꾸로 돌린것이 아닌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쉬지않고 자전을 계속하는것은 각운동량(angular momentum) 보존의 법칙을 따릅니다. 태양도 시계반대방향으로 둥니다. 천왕성은 궤도면과 98도 기울어져있어 지구가 수평으로 돈다면, 천왕성은 거의 수직으로(옆으로) 자전하는 셈입니다. 나선모양의 hurricane(허리케인)도 위에서 내려다보면 시계반대방향으로 둥니다 (남반구에서의 허리케인은 시계방향). 대부분의 사람들은 오른발잡이이기 때문에 왼발은 오른발을 지탱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운동장의 장거리경주나 야구경기등 한바퀴 돌아야하는 운동경기는 시계반대방향인 왼편으로 둥니다. 왼편으로 돌때 오른발이 힘을 내면서 지면을 박찰수 있기 때문입니다. 달릴때 보면, 왼편으로 도는것이 오른편으로 돌때보다 훨씬 빠릅니다

낮이 제일 긴 하지(summer solstice)에는, 북위 23.5도 지점에서 머리위로 직사광선이 내리쬛니다. 아시아시피 위도상 이 지점을 북회귀선(北回歸線)이라 부르는데, 영어로 Tropic of Cancer로 부릅니다. Tropic은 그리스어의 trope 에서 나온말로 “돌아오다(turn): 회귀”의 뜻입니다. 그러니까 태양이 여기까지 왔다가 더 올라가지 않고 적도쪽으로 (남회귀선까지: 남위 23.5도) 내려갔다가 일년후에 다시 돌아오기(turn) 때문에 붙여진 이름입니다. Cancer는 별자리이름으로. 2000년전 이름이 지어질당시 하지때의 태양의 위치가 Cancer(게(crab)자리) 별자리를 바라보고있는

교회에서 일어난 이산가족상봉

지난 2월 23일 알버커키연합감리교회에서는 최근에 오신 교우를 환영하는 새가족 환영회가 있었다. 이때 일어난 기적 같은 얘기를 김숙경 사모께서 아래와 같이 전한다.(편집부)

김숙경

알버커키연합감리교회

“마~~안네, “저어어 ~~ 영자예요.”

참, 서로 어색할 수밖에 없는 새 교우 소개 시간에 맞은 테이블에서 들려오는 작은 음성이지만, 믿기지 않는, 아니 믿을 수 없지만 사실인, 눈앞에 광경을 담아 흘리는 외마디...

세상 어느 누구도 상상할 수 없는 일로 인해 새 가족 환영회의 엄숙한 분위기는 삼시간에 눈물의 기적의 현장으로 바뀌었다.

12월 16일 2019년 주일날, 유용기 장노님과 유정남 권사님께서는 Medical Doctor이신 아드님께서 연로하신 부모님을 가까이에서 모시고자 하여 강권하여 시카고에서 알버커키로 모시고 오셨다. 그래서 장노님 내외분은 우리 교회에 오셨다. 조영자 집사님께서는, 덴버에서 알버커키로 사업장을 찾아 정착하시는 과정 속에서 우리 교회를 소개받고 오셨다. 이렇게 세분은 한 날 한 시에 우리 교회로 오셨고 저와 그, 두 가족은 한 밥상에서 함께 밥을 먹고 서로 평범한 인사를 나눈 후에, 같이 예배를 드려온 지 어언 3개월이 지나면서 생겨난 일이다.

나의 이야기로 글을 잠깐 돌리면, 22년 전에, 보스턴으로 향하던 비행기 안에서 맹장이 터져서 그 비행기가 알버커키에 비상 착륙하게 되었고, 나는 Lovelace 병원에서 수술을 받고 보스턴으로 돌아갔다가 5년 후에 다시 알버커키로 돌아오게 된 사연을 갖고 있다.

우리 장노님과 집사님께서도, 이제 나만큼, “이곳 알버커키가 특별해지시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다.

나는 알버커키에서 17년을 살면서 몇 번인가, 이런 소리를 들은 적이 있다. “알버커키에는 아무나 오는 게 아니야.” 그때는 흘려들었던 그 말이 이제는 맞는 것 같다.

어언 40여년 만에 이산가족 상봉은 이렇게 철저히 계획하신 하나님께서 두 가족을 미국에서 알버커키로~, 알버커키에서 교회로~, 교회에서 새가족 환영회로~, 같은 날 인도하셨다.

서로 소개하시는 내용을 듣다보니,

아~ 성함도 직장도 연세도.... 같으시니....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가 맞으시네!!

아~, 우리 손녀딸 맞네...!

장노님과 권사님 그리고 집사님은 서로 붙잡고 우시고,

우리는 입을 다물지 못하고^^...

두 손을 부여잡고 주차장으로 향하시는

할아버지, 할머니, 손녀따님의 만남과 함께

우리 교회 역사에 다시없을 감동의 새 가족 환영회는

그렇게 마치게 되었다. ■



<영어이야기 7> 15페이지에서 계속

위치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지금은 Taurus인 황소자리 별자리에 있습니다. 남회귀선은 Tropic of Capricorn인데, Capricorn은 염소자리 별자리이며, 지금은 Sagittarius(하반신은 말이고 상반신은 활을 쏘는 궁수) 별자리에 있습니다. 이들 남북 23.5도 사이의 기후는 4계절이 없는(우기와 건기만 있음) 더운지방이라 tropic이 두개있는 지역으로 복수형을 택해, the tropics가 열대지방을 나타내는 말이 되었습니다(tropical fish: 열대어). 하지를 나타내는 solstice도 태양의 뜻인 sol과 서있는 상태를 나타내는 sistere(to stand)의 합성어입니다. 동지는 winter solstice입니다. 필자의 Smartphone에는 나침반(compass) app이 깔려있는데, 방향뿐만 아니라 위도(latitude)와 경도(longitude)로 표시된 현재위치, 달과 태양의 위치도 실시간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한 자전축을 기준으로 한, 지리상의 북극인 True North(진북)과 나침반(compass)이 가리키는 Magnetic North(자북:磁北) 두가지로 setting할수 있게되어 있습니다. 2020년 2월 17일 오후 2시10분의 태양위치를 보면, Azimuth

213.6도와 Elevation 36.3도로 나와있습니다. Azimuth는 아랍어에서 온 말로 방향(direction)이란 뜻이며, 북쪽(지리상 북극)을 기준 0도로 잡고(동은 90도, 남은 180도, 서는 270도) 방향을 제시하여 줍니다. Elevation은 지상의 수평선에서 올라다보는 각도입니다. Azimuth가 213.6도이므로 대략 남서쪽인 213.6도로 방향을 잡고, 36.3도로 올라다 보는 지점에 태양이 떠있음을 알수있습니다. 나침반이 가리키는 북극(Magnetic North Pole)에서 나침반을, 악수할때의 손모양인 땅과 수직으로 옆으로 들면, 북쪽을 가리키는 바늘이 땅을향해 90도 수직으로 향합니다. 하나의 자석인 지구의 자력선이 직각으로 들어가는 지점이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극지점 바로위에서 나침반을 수평으로 들고있을때의 나침반이 가리키는 방향은 더이상 효력이 없습니다. 지구의 자력선이 모이는 지점이라, 북극 또는 남극에서는 우리가 사용하는 동서남북 개념은 없습니다. Albuquerque에 사는 우리들은 동쪽에 자리잡고있는 샌디아(the Sandia Mountains) 산 덕분에 방향감각에 어려움이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

저 권 그 고향집

김은희

알버커키연합감리교회



어린 시절 고향 집에 아버지와 함께 살구 묘목을 접종하여 심어 둔 작은 살구나무 한그루가 있었다. 몇 해 동안 무럭무럭 자라나더니 꽃이 피고 지기를 반복하던 어느 봄날, 꽃잎 떨어 자리에 보송보송 솟을 입은 콩알만 한 살구 하나가 쏘옥 얼굴을 내밀었다. 딱 하나 달랑 달린 그 어린 살구가 얼마나 신기하고 예뻐던지... 나는 매일 아침 살구나무 밑을 서성이며 애기 살구가 커 가는 것을 살펴보곤 했다. 점차 덩치를 키운 살구가 살빛으로 곱게 물들기 시작한 무렵 어느 날 아침, 하루 일과처럼 살구와 인사를 하려던 나는 “앗!” 흔적도 없이 사라진 살구의 빈자리를 보고 소스라치게 놀랐다. 살구의 모습이 오간 데 없이 사라져 버렸다. 행여나 바람의 짓이런가, 새들의 장난일까, 살구나무 밑을 두리번거리며 찾아보았지만, 내 사랑 오매불망 살구의 행방은 묘연하게 자취를 감추고 말았다. 실망만 가득 안은 나는 바로 내 위에 언니한테 그렇게 기다렸던 살구가 없어졌음을 얘기하니 언니는 아무렇지도 않은 것처럼 알곳은 웃음을 입가에 흘리며 “내가 벌써 따 먹었다!” 하는 것이었다. “아~~이 허탈감!!” 살구를 가로챈 범인은 세 살 터울 언니의 짓. 살구를 노렸던 건 나뿐만이 아닌 언니도 살구를 노렸었다는 걸 그땐 몰랐었다. 어쩌면 나는 살구가 연두빛에서 노르스름 살빛을 띠며 예쁜 모습으로 물들어 가는 것을 더 즐겼던 것인지도 모른다. 무심하게 내뱉은 언니의 “내가 따 먹었어.”! 라는 말에 속상해 울먹거리던 나는 마침내 울음을 터트리고 유독 나를 예뻐해 주셨던 할머니께 마치 내 살구였던 것처럼이나 언니가 나 몰래 살구를 따 먹었다며 고자질을 했더니, 올 할머니 혀를 끌끌 차시며 “여자 특히 지집아(계집아이)가 따먹는 게 아니라고 첫 열매는 가족중에 젤 어르신 남자 즉 아버지의 몫이야라며, 이젠 다시는 살구가 열리지 않을 것이라고 고운 눈을 흘기셨다. 하지만 나는 할머니의 말씀을 아랑곳하지 않고 그 이듬해 봄부터 열리는 살구는 꼭 내 차례가 될 거라고 언니한테 빼앗기지 않으려 매년 꽃 피는 봄이 오면 흐드러지게 피는 연분홍 살구꽃 사이로 얼굴을 치켜들고 꽃샘바람에 하늘하늘 내리는 분홍 꽃비에 얼굴을 내 맡겼다.

살구꽃이 다 떨어지고 나면 연녹색 잎새 사이로 살포시 콩알만 한 살구가 하나라도 다시 열리겠지 하는 바람으로 살구나무 꼭대기서부터 가지 주위들을 쭈욱 훑어보며 눈을 휘 번득대었지만 살구나무는 마치 할머니의 말씀을 엿듣거나 한 것처럼 흐드러지게 피워주던 살구꽃은 더이상 단 한 번의 결실을 맺어주지 않았다. 차츰 살구나무에 대한 기대도 사라질 무렵, 올망졸망 함께 살을 비비며 살던 형제들은 나이가 들어 뽀뽀이 각자의 삶을 향해 떠나고 오랜 타국생활에 숨 가쁘게 살아왔던 지난날들을 보상이나 받을 양 강산이 두어 번 변하였던 어느 해 다시 찾은 고향 집. 흔적조차 지워진 그곳엔 이젠 이방인이 되어버린 나의 존재는 떠도는 구름 한 점 되어 서글픔으로 물들고. 꽃 피는 봄이 오면 내 고향 초가지집에 흐드러지게 피워주었던 살구꽃 환영이 아른되어 고향 집 생각에 내 가슴은 아릿한 연분홍

그리움으로 물들여지곤 한다.

우리 집으로 올라가는 언덕 길옆에 아버지가 심어 놓으신 몇 그루의 무궁화꽃 나무와 빙 둘러 심어놓으신 아카시아와 뽕나무 등등으로 울타리를 만드시고 할머니가 일구어 놓은 텃밭에 고구마며 고추, 깻잎, 호박등등 고구마를 제외하고는 내가 싫어하는 야채들만 심어놓으신 할머니의 심보?. 할머니에게 코맹맹이 소리로 어리광을 부리며 내가 좋아하는 작물도 심어달라고 조르기도 했다. 오월이 되면 설화처럼 하얗게 피어난 한줄기 꽃을 따 한 입에 후르르 훑어 넣고 우물거리면 입안 가득 물씬 피어난 아카시아 꽃향기, 햇살이 가득한 늦각이 여름엔 뽕나무 열매 오돌기로 겹스레 입언저리를 물들이고 이슬 내린 아침 진보랏빛 나팔꽃 소리에 영롱한 유리구슬 주렁주렁 장식된 거미줄 집 사이를 헤집고 잠에서 덜 깨어 난 왕거미 한 마리 영기적거리며 기지개를 켜던 상큼한 고운 아침 봉선화, 채송화, 금잔화, 풍점초, 보라빛 난초와 새하얀 국화꽃 등등 아버지 키만큼이나 키가 큰 접시꽃들의 흥조 띤 미소, 뒷동산에 오르면 홀로 핀 가련린 진분홍 패랭이꽃의 해맑은 눈 맞춤이 있었던 내 고향 그 집. 산 밑에 우리집은 초라하지만 숲속의 집이랄 만큼 나무와 꽃으로 둘러싸여 있었다.

강원도 산골 분이셨던 아버지와 할머니께선 집 울타리가 온통 나무로 뒤덮일 정도로 심고 또 심으셨다. 세월이 흘러 언덕바지에 있던 우리 초가지집은 외부에선 거의 보이지 않을 정도로 초가지붕만 달랑 보인 나무로 둘러싸여 집, 그 앞에 처음으로 우리 동네에 멋진 이층 양옥집이 바로 눈앞에 버젓이 새로 들어서고 나니 우리 집 초라한 모습이 싫어서 “초가지붕아 꼭꼭 숨어라 지푸라기 보일라” 라며 늘 속으로 외치곤 했었다. 난 초가지집인 우리 집이 너무 창피해서 외부로 잘 보이지 않게 다행이라 생각을 하기도 했었다. 그러던 어느날 아버지도 내 마음을 읽으셨던 것처럼 드디어 우리집 초가지붕도 기와지붕으로 탈바꿈하던 날, 마치 새집을 얻은 것처럼 마냥 마음이 부풀고 기뻐했었다. 기분 좋아하는 딸의 모습에 아버지의 입가에도 옅은 미소가 맴돌았다. 엄마보다도 아버지와 할머니의 사랑을 독차지했던 나는 아버지의 품에서 철이 들 때까지 함께 잠을 자곤 했었는데 지금 돌이켜 생각해보니 어쩔, 그래서 엄마가 날 덜 예뻐하지 않았느냐라는 생각에 오래전에 돌아가신 엄마께도 미안한 마음이 들곤 한다. 내가 이리도 꽃에 대한 무한한 애정을 갖는 것도 어쩌면 아버지의 유전자를 더 많이 받은 것은 아닐런지... 이제 나도 이 나이가 되고 보니 모두가 다 그리운 얼굴들!, 오늘도 그리움 조각보를 덕지덕지 기워본다. ■

Shape
your future
START HERE >

United States®
Census
2020

2020년 센서스 인구조사 안내

금년 4월1일 기준으로 실시하는 센서스에 빠지는 한국인이 없기를 바랍니다.

홈페이지에 올려져 있는 한국어 센서스 안내를 여기에 요약 소개합니다.

센서스 인구조사는 무엇인가요?

2020년 센서스 인구조사는 미국 내 거주하는 모든 성인, 아기, 아동의 수를 셉니다. 이 인구조사는 정부 기관인 미국 인구조사국이 10년에 한 번씩 실시합니다

2020년 센서스 인구조사 응답 방법

모든 집마다 한 명씩 인터넷, 전화 또는 우편으로 센서스 인구조사에 응답해야 합니다. 신생아, 어린 아동, 또는 이 곳에서 살거나 잠자면서 대부분의 시간을 보내는 가족 구성원이나 친구 등 해당 주소에서 살고 있는 모든 사람의 수를 세어 주십시오. 정해진 주거지가 없는 사람이 2020년 4월 1일에 이 곳에 머물고 있다면, 이 사람도 세어 주십시오.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2020년 센서스 인구조사 응답 방법에 대한 질문이 있는 경우,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아래의 동영상 안내를 참조하여 인터넷으로 2020년 센서스 인구조사에 응답하시거나, 안내서를 참조하여 종이 설문지를 작성하십시오.

센서스 인구조사가 중요한 이유

센서스 인구조사는 우리 생활의 다양한 부분을 형성하는 중요한 데이터를 사용하여 지역사회에 서비스, 제품, 지원을 제공합니다.

- 매년 수십억 달러의 연방 자금이 센서스 인구조사 데이터를 기반으로 병원, 소방서, 학교, 도로 등 기타 자원에 사용됩니다.
- 센서스 인구조사 결과에 따라 각 주를 대표하는 미국 연방 의회 의석 수가 결정되며, 이 결과를 활용해 선거구 경계를 설정합니다.
- 또한 센서스 인구조사는 미국 연방 헌법에 규정된 것입니다. 헌법 1조 2항은 미국 정부가 10년에 한 번씩 인구 수를 셀 것을 의무로 정하고 있으며, 첫 번째 인구조사는 1790년에 실시되었습니다.

개인정보 보호 및 보안

응답자의 답변은 오직 통계 산출의 목적으로만 사용됩니다. 인구조사국은 법에 따라 귀하의 응답 내용을 보호하고, 철저히 비밀로 유지할 의무가 있습니다. 실제로, 모든 인구조사국 직원은 응답자의 개인 정보를 보호할 것을 종신 서약합니다. 미국 연방 법전 제13편에 따라, 인구조사국은 귀하나 귀하의 집 또는 사업체 등 개인 신상을 알 수 있게 하는 정보를 공개할 수

없으며, 심지어 사법 기관에도 공개할 수 없습니다. 귀하의 사적인 데이터를 보호하고, 귀하의 응답이 정부 기관이나 법원에서 불리하게 사용될 수 없도록 법으로 보장합니다.

동네에서 만나는 인구 조사원

내년 한 해 동안, 귀하의 동네에서 인구 조사원을 보게 되실 수도 있습니다.

이것은 2020년 센서스 인구조사에 포함된 통상적인 과정입니다. 각 동네마다 인구 조사원이 다녀야 하는데 몇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 센서스 인구조사에 대비하여 주소를 확인하는 중입니다. 센서스 인구조사 또는 인구조사국의 다른 설문 조사를 위해 집을 방문하는 중입니다.
- 센서스 인구조사 정보를 전달하는 중입니다.
- 센서스 인구조사 관련 업무를 확인하는 중입니다.

한 사람도 빠짐없이 셀 수 있도록, 2020년 5월부터 인구 조사원이 2020년 센서스 인구조사에 아직 응답하지 않은 집을 방문하기 시작합니다.

도울 수 있는 방법

2020년 센서스 인구조사에서 완벽하고 정확한 인구수를 얻기 위해 여러분의 도움이 필요하며 개인, 기업, 지역사회 단체 등이 도와주실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습니다.

소문을 내주세요

인구조사국 뉴스와 정보를 친구, 가족, 그리고 페이스북, 트위터, 인스타그램 팔로워들과 공유해 주시면, 큰 도움이 됩니다.

파트너가 되어 주세요

수백 개의 기업, 비영리 단체, 정책 입안자와 개인 등이 2020년 센서스 인구조사 및 조사 참여의 중요성을 널리 알리는데 함께 하고 있습니다.

인구조사국과 같이 일 하세요

인구조사국에서는 현재 미국 전역에서 2020년 센서스 인구조사를 보조할 수천명의 직원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지역사회를 도우면서 부수입도 올릴 수 있는 기회입니다.



뉴멕시코주 한인 교회 안내

갈릴리 장로교회 (Albuquerque)

김민순 목사 (505)975-0322
 주일예배 시간: 오후 1:00 pm (예배 후 점심식사 교제)
 어린이주일학교 시간: 오후 1:00 pm
 토요새벽예배 시간: 7:00 am
 주소: 2200 Chelwood Park Blvd NE, Albuquerque,
 NM87112 교회 웹사이트: www.galileeabq.com

라스 크루세스 침례교회 (Las Cruces)

김재태 목사(972)-822-1239
 주일예배 시간: 10:30 am
 새벽예배및 기도회: 5:30am(mon-sat)
 금요일예배및 기도회: 7:30pm-10pm
 주소: 2395 N Solano Dr., Las Cruces, NM 88001

라스 쿠르세스 장로교회 (Las Cruces)

유평산 목사 (915)329-3451
 주일예배 시간: 10:30am
 주소: 200 E. Boutz rd, Las Cruces, NM88005

로스 알라모스/산타페 한인 교회 (Los Alamos, Santa Fe)

김석훈 목사(505)699-4775
 주일예배 1부 시간: 11:30 am
 주소: White Rock 장로교회 (Los Alamos)
 310 Rover Blvd. Los Alamos, NM 87544
 주일예배 2부 시간: 2:00 pm
 주소: Westminster 장로교회 (Santa Fe)
 841 West Manhattan Ave. Santa Fe, NM
 웹사이트: www.santafekorchurch.net

미국장로교 알버커키한인장로교회 (Albuquerque)

이명길목사 (505)730-3614(hand)
 주일예배(2부): 오전 11:00, 영어예배(1부): 오전 9:00
 수요성경공부: 오전 11:00(사택)13804 Spirit Trail Pl.NE ABQ
 목요기도회: 오후 7:00
 예배처: 13804 Spirit Trail Place NE Albuquerque, NM
 87112

알버커키 연합감리교회 (Albuquerque)

김기천 목사 (505)-803-7716
 주일예배 (Korean Worship) 11:00 am (Sunday)
 영어예배 (English Worship) 9:45 am (Sunday)
 어린이 영어예배 (Youth Service) 11:00 am (Sunday)
 수요일예배 수요일 7:30 pm
 새벽기도회 5:40 am (Tue-Fri) 6:00 am (Sat.)
 주소: 601 Tyler Rd., NE, Albuquerque, NM 87113
 웹사이트: www.kumcabq.com

알버커키 한미 침례교회 (Albuquerque)

윤성열 목사 (505) 331-9584
 주일예배 시간: 오전 9:00 am / 오전 11:00 am
 새벽기도회 5:45 am (Tue-Fri)
 수요일예배 매주 수요일 7:00 pm
 주소: 3315 Tower Rd, SW, Albuquerque, NM

알버커키 한인 천주교 공동체 (Albuquerque)

민명희 스텔라 사목회장 / 이성희 요한 총무/기획부장
 주소: Our Lady of Annunciation Church
 2532 Vermont St NE, Albuquerque, NM87110
 소공동체(화,오전), 성령기도회(수,저녁)
 기도회: 매주 토요일 아침 09:00
 장소: Our Lady of Annunciation Church/St. Frances Hall
 Contact : (505)-503-9846
 기도회 회장: 루피나 장경림 자매님
 웹사이트: cafe.daum.net/abq-catholic

주님의 교회 (Albuquerque)

The International Church of the Foursquare Gospel
 김의석 목사 (505) 903-2297
 주일예배 시간: 오후 2:00 pm
 새벽기도회 6:00 am (월~토)
 성경공부 매주 목요일 10:00 am(교회)
 *Women's English Bible study 격주 금요일 10:00am
 *English Bible conversation group for young adults and
 UNM students 매주 일요일 1pm @ church.
 주소: 12120 Copper Ave.NE,Albuquerque,NM 87123

클로비스 한인 교회(Clovis)

이성희 목사 (575-791-1453)
 Korean Full Gospel Church of Clovis
 405 Connelly St. Clovis, NM 88101
 주일예배: 12:00pm 수요일 11:30am
 금요일예배: 7:30pm
 새벽기도회: 6:00am(월-금)

화밍톤 한미 침례교회 (Farmington)

신경일 목사 (505) 453-5461
 주일예배: 12:00 pm (한국어) 1:00 pm (Indian 영어)
 주소: San Juan Baptist Assoc.
 1010 Ridgeway pl., Farmington NM 87401

뉴멕시코 한인 업소 Korean Business in NM

알버커키 Albuquerque	Kelly Liquors #2 5850 Eubank NE (505)291-9914	식당 Korean Restaurant	식품점 Korean Grocery	자동차정비 Auto Repair
건축/페인트 Painting	Kelly Liquors #2 5850 Eubank NE (505)291-9914	A-1 한식 Cafe 6207 Montgomery Blvd. NE (505)275-9021	A-1 Oriental Market 6207 Montgomery NE ABQ (505-275- 9021)	The Garage 자동차 정비 6441 western Trail NW (505-352-5152)
1st Choice Painting Mr. Han Cho /조한욱 1113 Lawrence Dr., NE ABQ, NM 87109 (505-228-0393)	Kelly Liquors #5 6124 4th St NW (505) 828-1133	Arirang Restaurant 1826 Eubank NE, ABQ (505-255-9634)	Arirang Oriental Market 1826 Eubank NE ABQ (505-255-9634)	마이크 조 thegaragenm.com
공인회계사 CPA	Kelly Liquors #7 1418 Juan Tabo NE (505)292-4520	Asian Pear 8101 San Pedro Dr.NE, Ste D ABQ (505)766-9405	Kim's Oriental: 2306 Morris NE ABQ (505-296-8568)	주택용자 Loan Officer
MTM Accounting Service 문만길 회계사 9428 freedom Way NE ABQ, NM 87109 (505-823-2725)	Kelly Liquors #8 11816 Central SE (505) 299-3366	Fu-young 3107 Eubank #16 NE ABQ (505-298-8989)	이발소 미장원 Hair Cut	고산식 Lonnie Ko 7802 Menaul blvd. NE ABQ, NM 87110 (505-332-6663) (cell 505-379-0433)
교회 Church	Kelly Liquors #9 1903 Coors SW (505) 873-4477	Ichiban Japanese: 10701 Coors Rd NW ABQ (505-899-0095)	Salon 47 (황경희 Kay Latham) 5850 Eubank Blvd., NE (505-225-4983)	중재서비스
가톨릭 공동체: Our Lady of Annunciation Church, 2621 Vermont St., NE, ABQ, NM 87110 (505-652-4627)	Kelly Liquors #10 4312 Coors SW (505) 877-2777	Kim's Oriental 2306 Morris NE ABQ (505-296-8568)	Matthew Lee's Hair Style (홍정희)11901 Menaul NE (505-271-1056)	ADR-Mediation Service Sue 1614 Betts Court NE, ABQ, NM 87112 (505-332-9249)
갈릴리장로교회 2200 Chelwood Park Blvd. NE, ABQ, NM87112 505-975-0322	Kelly Liquors #14 6300 San Mateo Blvd NE Suite R (505) 797-9966	Korean BBQ & Sushi 4214 Central SE ABQ (505-797-8000)	Nob Hill Barber Shop (Sunny 박선희) 3408 Central Ave SE (505-256-0707)	치과 Dental Clinic
알버커키 연합감리교회 601 Tyler Rd NE ABQ (505-803-7716)	부동산 Realtors	Sakura Sushi Grill 6241 Riverside Plaza NW ABQ (505-890-2838)	Salon 123 7114 Menaul NE (505-872-0301)	Rainbow Dental 8611 Golf Course Rd. NW ABQ, NM 87120 (505-890-6101)
알버커키 한미 침례교회 3315 Tower Rd SW ABQ (505-331-9584)	김영신 Yong Shin Kim: Prudential Realtors (505-321-7695)	Samurai 9500 Montgomery NE, ABQ (505-275- 6601)		NAPA Family Dental Dr. 윤자정 10820 Comanche Rd, NE Albuquerque, NM 87111 ph)505-323-7700
알버커키한인장로교회 13804 Spirit Trail pl. NE ABQ (505-730-3614)	이준 June Lee Ready Real Estate (505-730-6178)	Shogun 3310 Central Ave SE, ABQ (505-265-9166)		호텔 Hotel
단요가 Dahn Yoga	세탁소 Dry Cleaners	Tamashi Japanese 6400 Holly Ave. NE ABQ NM87113 (505-717-2457)		The Ambassador Inn (조영자) 1520 Candelaria NE ABQ NM 87107 505-345-2547
알버커키505-797-2211 커티우드505-792-5111 산타페505-820-2211 다운타운 505-262-2211 아스트마운튼505-286-3535 www.dahnyoga.com	Kitch Cleaners 4606 Lomas Blvd. NE (505-255-0642)	Yummi Hous 1404 Eubank Blvd NE, ABQ (505-271-8700)		
리커스토어 Liquors	Laundromate Wash Brite Laundry 901-A San Pedro SE ABQ (505-266-3231)			
Casa Liquor 1649 Bridge Blvd. SW (505)247-2525				

뉴멕시코 한인 업소 Korean Business in NM

Stewart P. Ahn 5920
Whiteman Dr. NW ABQ,
NM 87120
(505-897-6889)

태권도 TaeKwonDo

Dynamic taekwondo
academy5850 Eubank blvd
NE B-35 ABQ, NM 87111
Master Jaeshin Cho(505)
271-2000

한의원 Acupuncture

Dr. Chang: (장상순)
2917 Juan Tabo Blvd. NE
#B, ABQ NM87112
(505-255-0878)
sangsoonc@gmail.com

Dr. James D Park: (박달규)
6501 Eagle Rock Ave, NE
Building A-6 87113
(505- 797-5400)
East West Integrated Pain
& Rehab Center

화원/원예 Nursery

Osuna Nursery: 501 Osuna
Rd NE, ABQ
(505-345-6644)

라스베가스
Las Vegas

치과 Dentist

Sanchez Dental, LLC
Christopher J. Yoon, DDS
(윤종석)
711 6th Street, Las Vegas, NM
87701
(505-425-3435)

라스크루세스
Las Cruces

공인회계사 ACC

Kelly Tax and Accounting
Services: 2131 N main st, Las
Cruces, NM 88001 (575-523-
5800)
(Fax 575-523-7700)

카페/ 선물 Cafe/Gift

Big Chair Cafe & gift shop:
2701 W Picacho Ave, Las
Cruces, NM 88007 (575-527-
0098)

교회 Church

라스크루세스 침례교회:
2395 N Solano Dr.
Las Cruces, NM 88001
전화번호(972) 822-1239

병원 Clinic

Esther Patterson: URGENT
CARE, Covenant Clinics, 3961
E. Lohman Ave, Las Cruces
NM88011 (575-556-0200)

리커스토어 Liquors

Kelly Liquors
3850 E. Lohman Ave.
Las Cruces, NM88011
(575)522-4646

로스 알라모스
Los Alamos

미장원 Hair Salon

차진주 헤어(Pearl's Place)
800 Trinity #E
Los Alamos
(505)412-5294

교회 Church

산타페 한인장로교회
310 Rover Blvd,
Los Alamos
(505)699 -4775

리오란초
Rio Rancho

리커스토어 Liquors

Kelly: 111 Rio Rancho NE, Reo
Rancho (505-994-8855)

로스루나스/벨렌/
버나리요/보스키팜
Bernalillo/Belen/Bosque
Farms' Los Lunas

리커스토어 Liquors

Kelly Liquors
408 Hwy 550W, Bernalillo,
NM87004
(505) 867-5838

Kelly Liquors
300 N Main st.
Belen, NM87002
(505) 864-2242

Kelly Liquors
395 Bosque Farms Blvd.
Bosque Farms, NM87002
(505) 916-5656

치과 Dental Clinic

Los Lunas Smiles Dr.윤자정
219 Courthouse rd.
Los Lunas NM87031
(505-865-4341)

산타페
Santa Fe

손톱미용 Nails

Tiffany Nails(윤성희)
410 Old Santa Fe Trl. #E
(505)982-6214

변호사 Law Firm

노영준 변호사
Cuddy & McCarthy LLP
1701 Old Pecos Trail
Santa Fe NM87502
(505)988-4476
jroh@cuddymccarthy.com

한국 식당
Korean Restaurant

Chopstix Oriental Food: 238 N.
Guadalupe St., Santa Fe
(505-820-2126)

베이커리 Bakery

베이커리 B&B(양성권)
38 Burro Alley
Santa Fe, NM87501
(213)369-1604

리커스토어 Liquors

Kelly/ De Arco Liquor
(@Solana Center)
915 W. Alameda St.
Santa Fe, NM 87501
(505) 954-1399

Kelly /Liquor Barn
2885 Cerrillos Rd.
Santa Fe, NM 87507
(505) 471-3960

Kelly Liquor
4300 Cerrillos Rd.
Santa Fe, NM 87507
(505) 471-3206

교회 Church

산타페 한인장로교회
841 West Manhattan Ave.
Santa Fe, NM87501
(505)699-4775

클로비스
Clovis

교회 Church

클로비스 한인 교회
Korean Full Gospel Church
405 N. Connelly St, Clovis
88101 (575-791-1453)

백화점 Mart

T-Mart
120 W 21st St.
Clovis, NM 88101
(575)218-3764

식당 Restaurant

Shogun Japanese Steak House
600 Pile St.
Clovis, NM 88101
(575)762-8577

식품 Korean Grocery

K's Oriental Food Store
921 Main St.
Clovis, NM88101
(575)762-8660

치과 Dentist

KidsKare PC Family Dentists
600 Texas St.C
Clovis NM88101
치과의사:박요셉-Sherry 부부
(575)-762-1900

화밍톤
Farmington

교회 Church

화밍톤 침례교회: 511 W. Ar-
rington, Farmington (505-453-
5461)

상점 Store

Kim's Imports: 3030 E. Main
Street, Suite 2, Farmington,
87402 (505-327-7167)

광야의 소리

Voice in the Wilderness, New Mexico

2020년 3/4월호

발행일 : 2020.3.7

발행인 : 김기천 (Rev. Kee-Cheon Kim)

편집위원장 : 이경화 (Kyong Hwa Lee)

출판부장 : 권구자 (Koo-Cha Choy)

광고담당 : 신옥주 (Ok-Ju Shin)

발행처:알버커키연합감리교회 출판부

Korean UMC in Albuquerque

601 Tyler Road NE

Albuquerque, NM 87113

E-Mail : voiceofnm@gmail.com

광야의 소리 원고는 매 짝수달 25일까지 받습니다.

지역사회를 위한 독자 여러분의 좋은 글이나 사진을 보내주

시길 바랍니다. (단 정치적인 글은 사양합니다.)

광야의 소리 출판 비용은 광고주의 후원으로
충당하고 있습니다
광고를 통한 후원에 관해서는 voiceofnm@gmail.com으로 또는
(505)275-9021(광고담당:신옥주) 로 문의 해 주시길 바랍니다.

A-1 한국식품
한국음식카페 CAFE
A-1 ORIENTAL MARKET
日本の食品
Mon-Sat 10:00am-7:00pm
Closed on Sunday
(505) 275-9021
Website: www.alorientalmarket.com
www.facebook.com/a1orientalmarket/
몽고메리/산페드로 코너
6207 Montgomery Blvd. Albuquerque NM 87109

The Garage AUTO REPAIR
30년 경험의 한인이 운영하는 자동차 정비업소입니다
2년 연속 엘버카지널 독자가 선정한 최고의 자동차 정비업소
문의사항 (505)352-5152
마이르 조
근무시간: M-F 7:00am-6:00pm (토, 일 휴무)
웹사이트: <http://thegaragenm.com>
주소: 6441 Western Trail NW Albuquerque, NM 87120

一番
Ichiban
Japanese Restaurant
10701 Corrales Rd NW,
Albuquerque, NM 87114
(505) 899-0095
11:00am to 2:30pm (Mon-Sat) for Lunch
4:30pm to 9:00pm (Sun-Thur) for Dinner
to 10:00pm on Friday & Saturday

Korean BBQ
우리집
& Sushi
Hours
Monday-Thursday
11:30am-2:30pm
5:00pm-9:30pm
Friday-Saturday
11:30am-10:00pm
Sunday Closed
4214 Central Ave. SE
Albuquerque, NM 87108
phone (505) 797-8000
www.abqsushiandsake.com

R1 NEW MEXICO
THE FUTURE OF REAL ESTATE

김영신/부동산중개인
Yong Shin Kim
505.321.7695
yongshinkim001@gmail.com
www.R1newmexico.com
505.883.9400